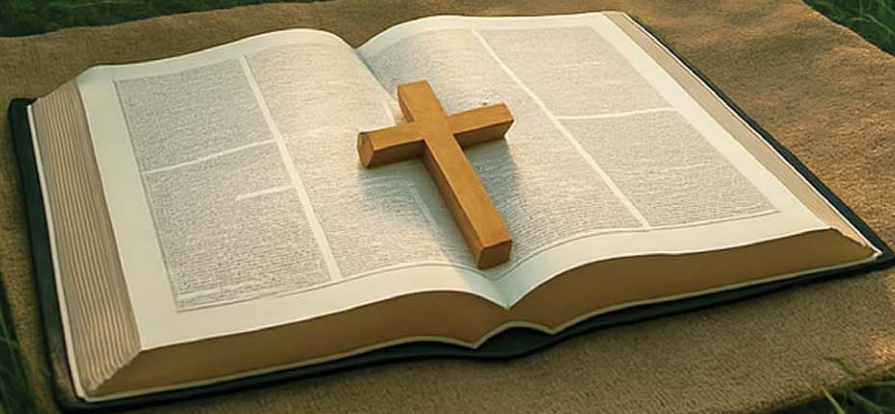


만남



SINCE 1945
YOUNGNAK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7/08

2025
통권 616호

교회표어

은혜의 80년,
이제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라!
(출애굽기 3:5, 10)



표지

푸르른 여름 숲 속의 7월, 펼쳐진 성경과 그 위에 놓인 십자가에 머무는 것처럼, 삶과 여유 속에서 신앙의 안식과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7월 목회력

- 6/30 월 ~ 7/5 토 ·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 06 주일 · 사랑부 예배 성찬, 세례·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 13 주일 · 제직회
- 27 주일 · 사회봉사주일

8월 목회력

- 02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 07 목 ~ 09 토 · 상담부 가족수련회 힐링캠프
- 10 주일 ~ 15 금 ·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 17 주일 · 상담부 공개강좌, 심방준비회
- 30 토 · 교육부 하반기 기도회

- 05 토 · 창립80주년 기념 교구연합 산상기도회 1차
- 12 토 · 창립80주년 기념 교구연합 산상기도회 2차
- 20 주일 · 남선교회 헌신예배, 심방준비회

- 03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10 주일 · 광복주일,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발단예배
- 13 수 ~ 17 주일 ·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 24 주일 · 사회봉사의 날

만남

2025년 7/8월호

통권 616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반환점을 돌아서며 김운성

특집 떠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05 십이란, 창조와 구원의 완성 이창호

08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성지순례여행 이원상

12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 좇아 믿음의 여정 이명호

14 교육부 여름사역 안내

15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간증 민승기·최세아

18 제자양육훈련과정 수강신청 안내 전태성

교회창립 80주년 특별기획

21 영락 '교제의 공간' 8월 20일 오픈 차남수

24 영락세계성가합창제의 감동 이경열

26 영락교회가 미군정 특별로 세워졌다? 박명수

만남 그리고 사람들

29 햄버거는 사랑을 싣고 이형일

30 "교회 안의 작고 따뜻한 만남을 위하여" 강상진

32 돕는 손길을 더하신 하나님 김용진

34 온전히 채우신 은혜 어찌나 큰지 이효순

땅끝까지 이르러

36 북한선교대회 김경옥·이나영·북한선교부·김연주

42 인제 기드온교회 봉헌감사예배 고은수

43 충성! 전역 후에도 믿겠습니다 최인

영락 글로벌

44 기아·질병·절망의 땅 콩고 사역 이야기 김경식

46 레크미 목사가 지피는 네팔의 '행복 불씨' 김용석

청년광장

48 은혜로 채워가는 '믿음의 청사진' 조경배

50 하나님과 데이트, 신앙 업데이트 승윤영

52 "삶이 곧 예배, 연주는 기도" 김대준

영락의 울타리

54 목회자의 길 걷게 하신 하나님 김예담

56 참빛육영재단 35년...기독 인재양성 외길 김내영

58 칼로리 짝, 영양은 짝 '건강 빙수' 권오란

60 미리 서본 목양의 자리...용기 생겼어요 오현석

61 '노년의 적' 페럼, 조기치료가 관건 박명재

64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 김한기

교회소식

65 가정예배학교 수료, 믿음의 집을 함께 세우다 외

68 빈센트 반 고흐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69 새아가 새가정



반환점을 돌아서며

김 은 성 담임목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매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1~8)

‘밥 버포드’의 책 『하프타임의 고수들』은 오래전에 출판되었지만, 여전히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케이 블 TV 회사를 경영하던 기업인 밥 버포드는 리더십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많은 이의 인생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 후반부를 전반부보다 더 값지게 사는 이들을 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반부에 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일을 하면서 후반부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갑니다. 모든 이가 반드시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더 개선된 태도로,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속하는 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무의

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후반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하던 시절, 매년 1월 초 사경회를 통해 은혜를 채워 출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6월 말에서 7월 초로 넘어가면서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었습니다. 1월 초에 가졌던 다짐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기도회였습니다. 영락교회에서도 하반기가 이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입니다.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으면

서 저는 이 해에 영락교회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기념비적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지난 여섯 달 동안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적으로 지난 6개월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개운치 않은 느낌으로 염려하는 이들이 많습니 다. 그런 중에도 시간은 흘러 하반기로 접어들습니다. 세 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삶을 지켜 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다윗 에게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 렸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 앞부분에서 인생이 헛되다 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인 생은 결국 스러지는 헛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면, 삶의 무의미성을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다양한 때를 언급합니다.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 때>를 통과하여 <죽을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올 것이라는 이치 한 가지 만 깊이 인식해도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죽을 때가 있 음을 안다면 방종하지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날을 사랑 하며 더 밀도 있게 살 것입니다.

또 본문은 한 가지 상황이 끝까지 지속하지 않는다 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끝까지 편안한 것은 아 니며, 지금 어렵다고 끝까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삶 은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 야 합니다. 목회자도 한 교회에 오래 머물면 타성에 젖

*바쁘게 살아온 시간 어느덧 절반 지나
연초의 다짐과 계획 유지되고 있나요?*

*스스로 변화 구해야 삶의 밀도 높아져
주님 뜻 생각하며 하반기 멋진 출발을*

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 합니다.

2025년 상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면서 이래저래 생각이 많습니다. 바쁜 삶을 멈추어 하얀 종이 한 장을 펴놓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시 는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이 위에 주 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마음으로 새겨 사각사각 연필로 적어 내려가 보십시오. 상반기에 인생 상위에 올라와 있 었지만, 실제로는 부질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 리고 중요하지만, 하위로 밀려 있었던 것들을 위로 끌어 올려 최우선으로 수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삶의 무게 중 심을 옮기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이에 걸맞은 결단 에 실패했습니다. 부친에게서 이어받은 영광을 이제는 자신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 새롭게 계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의 삶을 늙어갈 때도 그대로 이어갔던 그는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솔 로몬의 삶은 조금씩 계속 부패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 님께 외면당하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025년 7월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반기를 멋지게 출발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길 기원합 니다. **만남**



#떠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 영혼의 회복을 위해 어디론가 떠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마치신 7일째에는 쉬셨습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쉼은 달라야 합니다. 휴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산과 바다 숲, 어디라도 좋습니다. 고즈넉함과 기도 속에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좋습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로 계획을 세우셔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좇아 떠나는 성지순례여행, 구슬땀 흘리는 섬김의 현장에서 회복의 에너지를 재충전하십시오.

하프타임을 지나 올해의 후반기도 힘차게 내디디시길...



쉼이란, 창조와 구원의 완성



말씀이 창조의 이치이자 근원적 원리

‘태초에’로 시작하는 말씀은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이지요. 함께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니 빛이, 하늘과 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움직이십니다. 말씀이 창조의 이치이자 근원적 원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와 구원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창조에서 구원을 봅니다. 영혼만 쏙 빼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영혼

과 육체, 우리의 온 존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피조물들을 구원하십니다(로마서 8:21). 구원의 자리에서 창조를 봅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사랑, 모든 것 다 바치신 구원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구원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창조와 구원은 말씀에서 만나며, 말씀에서 하나가 됩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 예배 가운데 참 쉼 누리

창조의 목적, 창조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의 일곱 날 가운데 어느 날이 창조의 완성과 절정에 해당합니까? 일곱째 날 곧 안식입니다. 모든 것과 함께, 모든 것 안에서 쉬시고 또 누리시는 하나님의 ‘쉼’(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자 완성이며 절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최종적 목적은 안식입니다. 안식의 의미, 특별히 안식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이창호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사귄 안에서 쉬는 것이요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예배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이 또 우리의 온 존재가 참 쉬를 누리는 것 말입니다.

주일에 안식해야 하는 까닭

왜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왜 주일에 안식해야 합니까?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11절인데요, 8절과 11절을 옮깁니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 이는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지키는 까닭은 하나님이 여섯 날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고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안식은 구원의 감격 다시 체험하는 것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안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 12~15절인데요, 15절을 옮깁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일 성수를 통해 새기고 이루어야 할 안식의 의미, 누려야 할 안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다시 잠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사모해야 할 은혜는 구원의 감격,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처음처럼 다시 체험하고 감사·감격하여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자 주일의 본질입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부를 찬송들

창조의 목적과 완성은 ‘안식’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과 완성은 무엇입니까? 역시 ‘안식’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려면 가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완성의 영역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찬양과 경배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부를 찬송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 12~13절에 나오는 찬송을 들어봅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 어다 하니”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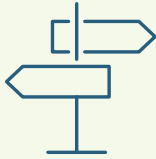
창조와 구원은 어디에서 하나가 됩니까? 그 목적, 그 완성, 그 절정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참다운 쉼과 안식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소명입니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쉼(안식)을 이해하면 쉼은 ‘누림’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해 봅시다. “보기에 좋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미학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름답기에’ 좋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시편 8편의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신 현장에 찾아가 하나님의 감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성경에서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만남(사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 아름답다고 평가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도덕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 앞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는 좋습니다, 감동합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거기서 깊은 인생의 의미를 찾으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완성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료 존재들과의 사귄 가운데 쉼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깊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이루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 곧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은 소명이자 행복의 참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남**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성지순례여행



예루살렘 성전

‘여행’하면 쉼, 여유,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설렘이 느껴집니다. 이번 호 『만남』을 통해 우리 교회 제자양육부의 신앙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성서지리반’에서 진행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여행사 임원으로서 그 일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봄학기(3월~6월)와 가을학기(9월~11월)의 금요일마다 담당 목사님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학기 말(6월과 11월)에는 각각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으로 찾아가는 성지순례는 세 가지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❶ 이스라엘/요르단 성지
- ❷ 튀르키예/그리스 중심의 사도바울 전도 여행 일정
- ❸ 독일/체코/스위스/프랑스 중심의 종교 개혁지 탐방

현재는 분쟁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원상 장로
중구·용산교구
경조부 부장

예수님의 생애와 성경의 인물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요르단 방문지(9일 일정)

- 텔아비브-갈멜산-나사렛-가나-갈릴리지역(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팔복교회, 베드로수위권교회, 가버나움 등)
- 사해지역(요단강 예수님세례터, 쿨란, 마사다)
- 여리고(삭개오 돌무화과 나무, 시험산)
- 베들레헴(예수탄생기념교회)
- 예루살렘(십자가의 길, 시온산 및 감람산 주변, 히스기야 터널 등)
- 요르단(마케루스, 느보산, 페트라 등)



갈릴리호수의 일출



갈릴리호수 북쪽 베드로수위권교회 내의 주님의 식탁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의 서안지구(West Bank)와, 남서쪽 가자지구(Gaza Strip)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며, 분리장벽으로 간혀 있으나 여행자들도 비교적 큰 불편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예리고도 이 서안지구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경상북도와 비슷하며 통상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북쪽)에서 브엘세바(남쪽)까지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시간~1시간 30분 이내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비교적 버스 이동 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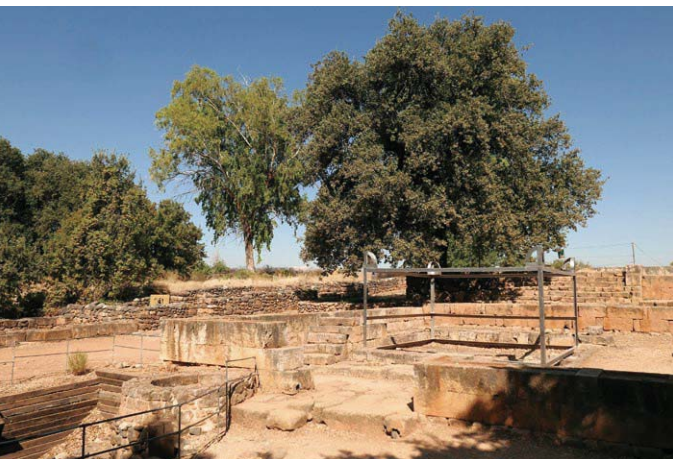
이스라엘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북쪽의 텔단 국립공원(텔:지역, 언덕을 뜻함)으로 혈문산의 눈이 녹아 흐르는 풍부한 수량과 울창한 숲으로 아름다운 환경이 마치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생각나게 합니다. 단 지파의 거주지였으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곳과 벧엘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멜산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1로 대결했던 역사적 장소로, 엄청난 위용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대부분을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가버나움을 ‘본 동네(His Town)’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기념교회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장소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은 화학적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갈릴리 북쪽의 ‘베드로수위권 교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친히 조반을 준비해 제자들을 먹이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식탁(Mensa Christi)’이 있습니다.



텔단의 여로보암의 제단



유대광야

이스라엘/요르단 일정 중 유일하게 2박을 하게 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갈릴리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는 숙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호수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 빠졌던 그 호수에서 수영하거나 아침 일출을 보는 것은 멋진 경험이 될 것이며, 배를 타고 드리는 성만찬은 특별한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체험과 사해의 신비

국토의 절반 정도가 광야와 사막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 사해 방향으로 가는 길에 유대광야를 만납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투정하던 이스라엘 백성... 과연 나는 견뎌 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해에서의 경험 역시 특별합니다. 헬몬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 사해에 이르게 되는데, 바다라 불리지만 커다란 호수입니다. 증발하여 남은 물에는 광물질이 많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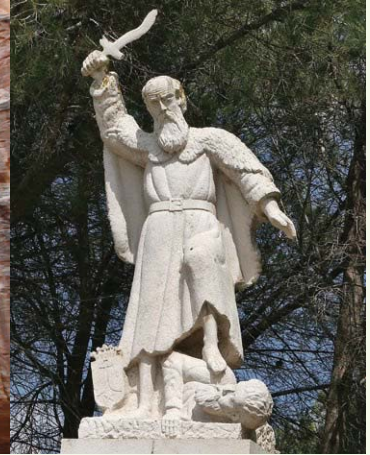
일반 바다의 5~6배의 염도 때문에 몸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요르단의 느보산에는 모세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므리바 사건'(민수기 20장)으로 인해 모든 헌신과 충성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모세, 하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한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세를 생각할 때(마태복음 9:2~5)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요르단 여행의 보너스로 페트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나바테아왕국의 수도였던 페트라는 기원전 5세기경 붉은 사암을 깎아 만든 상상 이상의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고대 건축기술에 감탄을 금할 수 없으며,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입장료는 한화 약 10만 원 정도로 꽤 비싼 편입니다.



페트라와 알카즈네(아랍어로 보물)



갈멜산의 이방신을 밝고있는 엘리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언덕을 오르며

예루살렘을 말할 때 ‘오른다’,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해발 약 800m에 있습니다. 시온산을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통곡교회, 감람산을 중심으로 주기도문교회, 쾃세마네기념교회 등 많은 기념 교회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 주변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싼 묘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승천하셨던 이곳으로 먼저 오시고, 이곳에 묻힌 이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곳이며,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예 힘을 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로다 언덕을 오르셨던 ‘십자가의 길(Via Dolorosa: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묵상에 잠깁니다.

현재 이 길은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팔레스타인 중심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제 1지점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14지점까지, 총 14개 지점을 따라 고난을 되새기며 기도와 묵상 속에 이른 새벽에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수많은 기념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외형적인 현장을 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그곳에서 하셨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그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서 함께 호흡하고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성지순례의 의미가 아닐지 생각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및 아랍 국가들과 분쟁 중으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쟁의 중심지인 가자지구 바로 옆 브엘세바(일곱 개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에서 선교지를 지키며 구호(救護)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영락교회 파송 김정혁 선교사님께(부인 유세영 선교사와 4명의 아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만남**



조선을 사랑한 언더우드 좇아 은혜로 따라간 믿음의 여정



뉴브런즈윅신학대학원 졸업예배 찬양

선교 140년 언더우드 선교사... 발자취 탐방

지난 5월 22~29일에 필자는 연세장로찬양단의 일원으로 한국선교 140년을 기념하여 미국 뉴저지의 언더우드 선교사 유적지 및 워싱턴 D.C. 한국전쟁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순례하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자취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현장에서 느낀 소회를 간증하고자 한다.

1. 목사 안수받은 뉴브런즈윅 신대원 졸업예배 찬양

22일 뉴욕 공항에 도착한 후, 23일 저녁 7시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뉴저지 뉴브런즈윅 신학대학원(1784년 창립)의 '2025년도 졸업예배'에 참석했다. MacCreary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찬양단은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와 '송축해 내 영혼(10000 Reasons Bless The Lord)' 두 곡을 찬양으로 드렸다. '조선을 사랑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의 헌신은 한국 교회 정체성과 정신적 뿌리를 형성했다. 이곳 뉴저지에서 조선이라는 낯선 땅을 향한 부르심을 받고 떠난 언더우드의 결단을 기리며, 그 정신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MacCreary 총장은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설립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장로들로 구성된 찬양단이 뉴브런즈윅신학대학원의 졸업예배에서 '감사찬양'을 드린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2. 청년 언더우드 신앙의 뿌리 그로브개혁교회서 찬양

25일 주일에는 청년 언더우드 신앙의 요람인 그로브개혁교회(1857년 창립) 주일예배의 찬양대로 세움을 받았다. 170년 전, 그가 학창 시절 다녔던 그로브개혁교회는 현재까지 남아 그의 어린 시절 신앙의 흔적을 간직했다. 작고 오래된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듯, 초창기 선교사의 기도와 헌신을 느낄 감동의 순간이었다. 이 자리에서 '놀라우신 은혜(Amazing



이명호 은퇴장로
안양·수원교구
연세대 명예교수



그로브개혁교회 주일예배 후 언더우드 가족묘역 참배



워싱턴 D.C.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 참배 및 찬양

Grace)’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The Lord is My Shepherd)’ 두 곡을 찬양으로 드렸다. 학창 시절 가족과 함께 신앙을 키웠던 그로브개혁교회는 언더우드가 묻힌 곳이다.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다 건강이 나빠진 언더우드는 미국으로 돌아와 57세의 나이에 뉴저지의 한 병원에서 소천했다. 생전의 그는 조선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다. 예배 후, 언더우드 가족 묘역을 찾아 조용히 찬양하며, 필자는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의 유산을 잇겠다는 다짐의 대표 기도를 드렸다. 찬양단과 성도들이 함께 오찬을 나눌 때 그로브개혁교회 Steven Gersomo 목사는 “언더우드의 한국선교사역은 역사적 자료와 함께 세계 선교 유산으로 영원히 기념될 것”이라고 말했다.

3. 희생과 헌신… 워싱턴 D.C. 6.25 참전용사기념공원 참배

27일, 미국 현충일을 맞아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참전용사기념공원을 찾았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구 앞에서, 자유대한민국의 기초가 얼마나 값진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를 깨달았다. 수많은 미군 젊은이가 머나먼 한국을 위해 흘린

피와 눈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선교를 논할 수 있음을 깊이 새겼다. 기념비 앞에서 찬양단은 양국 국가와 미국민요, 그리고 찬송 ‘평화를 주소서(Dona Nobis Pacem)’를 부르며, 이 땅의 자유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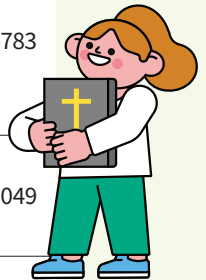
4. 은혜의 여운

필자는 이번 탐방을 통해 단지 과거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깨달았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명, 그리고 선교 140년의 의미를 새기고, 한국 교회와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단지 한국에 복음을 전한 초기 선교사 중 한 명일 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을 연 영적 유산의 상징이었다. 그의 사역은 지금도 해외 한국 교회와 선교 지역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이 믿음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며 끝을 맺는다. **만남**

교육부 여름사역 안내



부서	사역	일자	장소	주제	문의
사랑부	여름수련회	7월 25일(금) ~ 27일(주일)	파주 영산수련원	광야를 지나, 거룩한 땅으로	010-5265-0394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7월 5일(토) ~ 7월 6일(주일)	50주년기념관, 영아부실	예수님 믿는 아이 jump! jump!	010-8876-2463
유아부		7월 12일(토) ~ 7월 13일(주일)	50주년기념관, 유아부실		010-4101-4008
유치부		7월 19일(토) ~ 7월 20일(주일)	50주년기념관, 유치부실		010-9109-0867
유년부		7월 25일(금) ~ 27일(주일)	50주년기념관, 유년부실	가스펠 탐험대와 함께하는 부흥 대작전!	010-2799-3624
초등부		7월 25일(금) ~ 27일(주일)	양평 미리내 캠프		010-8949-5637
소년부					010-2380-1484
CebC		8월 8일(금) ~ 9일(토)	영락기도원	True North : Trusting Jesus in a Wild World	010-3329-5928
중등부	여름수련회	7월 25일(금) ~ 27일(주일)	원주 피노키오 수련원	CENTER	010-3967-6783
	비전트립	8월 5일(화) ~ 8일(금)	제주도 성지 및 교회	THE WAY 제주도	
	찬양대 비전트립	10월 4일(토) ~ 8일(수)	일본(나고야, 오사카)	THE WAY 일본	
고등부	여름수련회	7월 25일(금) ~ 27일(주일)	충남 보령 성광교회	Love flow	010-5533-3049
	아웃리치	7월 28일(월) ~ 8월 2일(토)	네팔 카트만두	Acts 29	
대학부	여름수련회	8월 14일(목) ~ 16일(토)	김포 로그밸리 청소년 수련원	LORDING	010-9403-9146
	국내 단기선교	7월 1일(화) ~ 4일(금)	전남 영광 군서제일교회	사랑으로 증언하라	
베드로부	여름수련회	7월 19일(토) ~ 20일(주일)	영락기도원	Now Go!	010-5241-9419
청년회	국내 하기선교	8월 13일(수) ~ 17일(주일)	포항 6개 지교회	Fly High Together!	010-3897-1000
	해외선교봉사	10월 2일(목) ~ 9일(목)	일본 (오사카)	-	





내가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니?

불안과 막막함... 중2 내 삶을 바꾼 수련회

매년 참석했지만, 중학교 2학년 1학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맞이했던 작년 수련회는 특별했습니다. 삶은 불안함의 연속이었고, ‘빨리 수련회에 가고 싶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오전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조별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

찬양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의 한 구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라는 가사에 눈물이



민승기 학생
중등부 3학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꼈습니다. 위십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터졌습니다. 설교를 들을 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과 똑같이 산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불안하니?” 그 순간,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이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기도회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 선배님들과 서로 기도할 때, 은혜는 배가 되었고, 영락교회 중등부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수련회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받는 시간

수련회 이후, 제 삶에 변화가 왔습니다. 이전에는 불안할 때 세상을 붙잡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치 평소에는 일반 음식을 먹다가 가끔은 보양식 같은 특별한 음식을 먹듯, 일상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일 년에 단 두 번뿐인 수련회에서는 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충전한다 생각합니다.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단 여섯 번의 보양식, 이 소중한 수련회에 참여하여 기쁨과 회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만남**



받은 사랑, 흘려보내고 싶어요



화합 일깨워준 작년 여름수련회의 추억

영락 고등부의 2024년도 여름수련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등부 학생 부회장으로 수련회를 직접 기획해야 했기에 걱정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전 답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련회에 온 많은 친구가 은혜받고 재미있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기획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수련회를 직접 기획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우리끼리 수련회를 기획하며 빚어진 갈등을 틈타 분열과 미움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은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화합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회에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Fom 미쳤다!’… 전도 어색하던 내게 용기 줬

작년 여름수련회의 주제는 ‘Fom 미쳤다!’였습니다. ‘Fom’은 ‘Fishers Of Men’의 약자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마태복음 4:19 말씀이 기반이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제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미쳐 있어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늘 전도가 어려웠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멀어 학교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하는 것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몇 번 시도 때마다 거절당하다 보니, 전도라는 것은 제게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주제의 깊은 뜻을 알고 난 후, 다시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전도의 실패’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친구에게 수련회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해봤지만, 결국 함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손 맞잡고 드린 기도… 하나님의 따뜻함 느껴

수련회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은 설교 후, 다같이

이 무대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아끼는 선후배들이 무대에서 함께 기도하던 중,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무대 위에 있던 학생 모두 손잡고 기도하게 된 일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파스함이 느껴졌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수련회에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그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설교 시간도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인생에 대해 힘들어했을 때 부모님이 짧은 영상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김선교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위로가 돼? 나랑은 먼 얘기겠지!’ 하면서 무심하게 넘겼었습니다. 나중에 SNS를 보다가 김선교 선교사님의 영상이 추천에 올라와서 보니, 내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의 강사로 오시는 분이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게 많은 위로를 주신 분께서 직접 수련회에 오신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닷가 물놀이,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다

바다에서의 물놀이도 기억에 남습니다. 물속에 들어가 함께 놀고 장난도 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걱정해 주십니다. “학교나 학과는 정했니?” “성적은 어때?”라는 말들

이 숨통을 조였는데, 여름수련회는 하나의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공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바다에서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걱정 없이 그저 즐겁기만 한 나라이지 않을까?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보령 여름수련회... 섬김의 수고 다 할 것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전도에 열심을 내자!’라 배웠고, 신나게 놀았던 작년 여름수련회! 이제는 고등부 3학년이 되어서, 후배들이 진행하는 수련회에 갑니다.

올해 영락 고등부 주제는 ‘Love Flow’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랑이 흘러간다’고 이해했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충남 보령의 성광교회로 갑니다. 그곳에서 노동하며 섬길 예정이라 할 때, 부담보다는 기대가 앞섰습니다. 학교와 입시에 집중하느라 쉽게 경험할 수 없었던 ‘이웃을 위한 수고’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기회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일 것입니다. 저를 통해 제가 받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정성과 책임을 다해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는 친구들과 후배들, 선생님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흘러가는’ 경험을 소망합니다. **만남**



최세아 학생
고등부 3학년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터 장년 성도까지 신앙의 뿌리를 내려 믿음의 성장을 지속하도록 양육과 훈련을 위한 과정을 제자양육훈련부(부장 차남수 장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육훈련과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받고 참다운 제자로 양육되어 지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다섯 가지 주제(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와 다양한 주제의 과목들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양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인원은 매년 1,000여 명으로, 주일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리는 평균 9,500명(2025년 6월 기준: 등록교인 48,778명) 중 10.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좀더 많은 영락의 성도님들이 양육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소원하며, 양육훈련과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전태성 안수집사
인천교구
제자양육훈련부 차장

제자양육훈련과정 8월 개강

핵심·일반·일상훈련 3개 과정
7월 20, 27일 하반기 수강신청

영락성도 10명 중 1명 꼴 참여

성경·성령·예배·기도·전도 등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법 배워

제자양육훈련과정은 핵심과정과 일반과정, 일상훈련 및 적용과정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핵심과정은 신앙성장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필수과정으로, 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의 5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정은 필수과정이 아니지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이며, 일상훈련과 일상적용과정은 동일 관심사를 교제하며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핵심과정만 각 과목별로 매주 한 시간 8주 일정으로 년 4분기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과정은 학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과정으로 나뉘어 상반기(3월 개강)는 2월에 있었으며, 하반기(개강 8월)는 7월 20, 27일(주일)에 있습니다. 양육훈련 각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과정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성경의 구성을 배웁니다. 구약과 신약 각 권들의 주제와 주요 메시지를 공부하며, 성경 읽기를 위한 뼈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각 권을 읽을 때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활동과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긴 시간 이어져 온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핵심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

성도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예배의 목적을 다시 되새기며,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만나서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교육과정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방법,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등 기도에 대한 기초과정을 배웁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전도의 기본적 목적과 어떻게 복음 전도가 이루어져 왔는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부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기초과정을 배웁니다.

일반과정



마태복음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 |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제자의 삶이 있게 조명합니다. 산상수훈부터 십자가까지, 제자됨의 본질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길을 마태복음을 통해 배웁니다.

영락양육 심화과정 | 영락양육 심화과정은 다양한 신앙교육을 마치고 헌신의 과정을 거치신 분들을 위한 재교육과정입니다. 제자도, 말씀, 기도, 공동체의 영역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구약 배경사 | 성경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통해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강의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정치, 사회, 종교를 조망하며 구약 성경의 맥락과 메시지를 깊이 있게 풀어냅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소예언서 |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열두 소예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회복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강의입니다. 각 예언서의 시대적 맥락과 핵심 주제를 조명하며,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나눕니다.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고백될 사도신경 산책 | 초대교회
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따라 기독교 신

앙의 핵심을 되짚어보는 여정입니다. 각 문장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고백 속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믿음을 되새깁니다. 일상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언어로 사도신경을 새롭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 |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조명하는 강의입니다. 짧고도 역동적인 서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의 본질을 깊이 묵상합니다.

심리학을 통한 성경인물 이야기 | 성경 속 인물들의 감정, 선택, 갈등을 심리학적 시각으로 풀어보며 그들의 인간다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강의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이들의 내면을 이해함으로써 오늘 우리 삶의 고민과 신앙을 성찰하게 합니다.

성경 통독 | 3월 개강 12월 종강하며, 매주 금요일 3시간, 1년에 한 번 성경 전체를 읽는 과정입니다. 각 권의 핵심 주제와 연결 고리를 살펴보면 말씀 전체를 큰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서 지리 | 성경의 무대를 이룬 땅과 지형을 통해 말씀을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강의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의 역사·지리적 배경을 따라가며 성경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합니다. 강의 후 신청자에 한해 실제 답사를 진행합니다.

일상훈련과 일상적용



일상훈련

3040QT훈련(마태복음), 월요저녁QT훈련, 화요오후QT훈련, 목요오전QT훈련, 목요저녁QT훈련, 토요오전QT훈련, 차세대QT와 신앙 북토크, 성경암송, 성경필사

일상적용

일어성경반A, 일어성경반B, 3040일본어 기독문화, 불어성경반, 성경적 경제생활

7월 수강신청에 영락의 많은 성도님께서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길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영락 '교제의 공간' 8월 20일 오픈

50주년기념관 로비·지하1층, 코이노니아의 장으로 새단장



교인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 중 하나로 '코이노니아 공간분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간재구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메가시티 교회(대형교회 또는 도시선교 중심의 교회)로서의 외형을 넘어, 교회 80년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리포밍 교회(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속해서 개혁하려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인들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도 열린 '도심 속 교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층과 지하 1층의 노후화된 공간의 환경을 개선하여 개방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 1층(공사 면적: 707.82㎡
(남산 방향 증축 면적 76㎡ 포함))
- 지하 1층(공사 면적: 955.87㎡)

모든 세대의 성도가 삼삼오오 소그룹 형태로 말씀을

나누고, 음료와 다과를 즐기며 친교할 수 있도록 북카페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북스토어를 함께 운영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소그룹 미팅룸을 1층에 2개, 지하 1층에 3개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지하 1층 친교부 공간은 전면적으로 현대화했으며, 각 부서와 자치단체, 동호인 모임 등이 전시회를 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소극장의 영상 및 음향 장비를 현대화하여 3040세대와 미래세대가 소공연, 위십 연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로 기능을 개선했습니다.

미팅룸 자모실 북스토어 소극장 등 기능 강화

열악했던 자모실을 보완 설치하고 아기들의 수유와 기저귀 교체 등을 할 수 있는 수유실도 실용적인 공간으로 구성했으며, 남녀 화장실 구조개선 및 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남녀 각각 구성했습니다. 또한, 1층과 지하 1층에는 예배 중계, 결혼예식 중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될 전광판과 TV를 설치했습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즐기며 나누는, 그리고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영락교회의 정다운 만남의 공간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합니다.



차남수 장로
성동·광진교구
80주년 기념사업회
코이노니아 공간분과 분과장

1F 로비 친교공간 276석



B1F 북스토어라운지 210석



확 달라진 지하1층

북스토어 확대 공간 활용도 높여
친교공간 전시회 가능한 장소로
소극장 영상·음향장비 현대화





1층 로비 소그룹 만남의 장
로비면적 76㎡ 넓어져
쾌적한 자모실·수유실
소그룹 미팅룸 5개 신설
(1층 3개, 지하1층 2개)



자모실



수유실

B1F 소극장 95석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두 번 연주된 할렐루야 ‘천국 음악회’

미국, 호주 등 참여한 영락세계성가합창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1일 세계성가합창 연주회가 베다니홀에서 있었습니다. 이 합창제에는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의 성가합창단이 영락교회의 초청으로 참여해 다채로운 찬양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외국 찬양대의 봉헌 특송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감동이 저희 부부를 저녁 특별음악회로 인도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 전체영상을 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받은 감동을 나누는 것이 의미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로 정리해 봅니다.

베다니홀은 영락교회 50주년을 기념해 건축된 건물에 1,300석 규모의 콘서트홀로, 전문 음악행사를 위한

장소입니다. 2023년, 본인도 CTS America합창단의 일원으로 초청되어 공연 무대에 오르는 영광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청중의 입장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초대형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함께, 만석을 이룬 객석에 저희 부부 둘이 함께 앉아 합창제 공연을 기다리는 순간부터 큰 설렘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산나 이어 갈보리찬양대... 호주선 최상급 아카펠라

첫 순서는 본인도 40여 년 전 봉사했던 영락교회 호산나찬양대였습니다. 현재 지휘를 맡은 장세완 장로는 주일학교 유년부 시절부터 찬양단원으로 활동한 기독교 음악가입니다. ‘할렐루야’와 ‘이 작은 나의 빛’ 두 곡을 30여 명의 젊은 찬양대가 거룩하게 연주했습니다.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합창단의 연주, 그리고 영락교회 갈보리찬양대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갈보리찬양대는 'THE GOD'이라는 매우 신선하고 새로운 형식의 성가곡이라고 할까! 아주 색다른 연주곡으로 150명 규모의 대합창을 선보였는데, 지휘자 박신화 장로의 멋진 리드가 돋보였습니다.

호주 페스티벌 스테이지맨 코러스는 약 20명의 남성 프로 싱어로 구성된 팀으로, 거의 최상급 수준의 아카펠라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온찬양대는 재즈풍 찬양곡... 드럼 키보드 합주 신선

이어서 시온찬양대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영락교회 80년 역사와 전통 속에서 객상수, 박재훈, 윤학원 등 대한민국 교회 음악계의 거장들이 지휘해 온 찬양대입니다. 170명의 단원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고등학교 시절 함께 찬양했던 반가운 친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들에게서 평생을 찬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리러'라는 곡도 처음 듣는 찬양곡이었지만, 재즈풍에 드럼, 키보드까지 합주한 새로운 형식의 찬양으로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 합창단 한국어성가곡 '그가(He is)' 감동 절정

마지막 순서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신학교 합창단이었습니다. 약 30명의 미국인 대학생들이 세 곡을 연주했는데, 그중 하나인 '그가(He is)'에 제일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미국 합창단이 한국어로 성가곡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넘어,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덕분에 한국어 찬양으로도 세계 선교화가 지 이루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의 원곡자인 우효원님은 영락교회 출신 음악인으로 주옥같은 창작 성가곡을 많이 만들어, 세계적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80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음악을 이 정도로 발전시킨 영락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피날레 장식한 할렐루야, 양코르곡 대신 한번 더

피날레로 7개 찬양대 450여 명이 다 함께 무대에 올라 헨델의 '할렐루야' 합창을 시작하자 1,300명의 청중이 다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음악회 감동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 양코르를 연호하자 연합 찬양 지휘를 맡았던 박신화 장로의 손사래를 하시는 중에, 기도로 마치려 무대에 오르신 김운성 담임목사님이 "준비된 양코르 곡은 없고 할렐루야는 있다" 하시며 재연주를 이끄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은 마치 천국 같은 음악회였습니다.

모든 지휘자가 무대에 올라 청중께 인사한 후, 그들도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리는 '두 번째 헨델의 할렐루야'는 제 목소리도 함께하게 되는 멋진 감동의 피날레였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음악축제였습니다. 450명이 부르는 헨델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만남**

이경열 성도
중구·용산교구



새롭게 보는 영락교회 80년사

일부 학자들은 영락교회가 미군정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교회를 세웠다고 주장한다. 영락교회의 위치에 원래 일본 천리교경성대교회가 있었는데, 미군정이 그 자리에 영락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한경직 목사가 영어 실력을 갖춘 친미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군정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문제를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영락교회는 미군정 특혜로 세워졌다? 교회 터 적산불하 아닌 정당한 매입

미군정의 일본 재산 처리 원칙

태평양전쟁 직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를 정리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일본 군국주의의 기초는 신도(神道)이다. 일본의 조상을 섬기는 신도는 천황 숭배와 대동아공영권의 근본이 된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신도를 조선인에게도 강요했다. 미군정은 일본 군국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 신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국가 신도라고 불리는, 정부가 운영하는 신사나 신궁이며, 다른 하나는 교파 신도라고 불리는 천리교와 같은 민간 종교다. 이 둘은 같은 일본 종교인 신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들 가운데는 천리교 신자가 많이 있었고, 서울의 가장 큰 천리교는 현재 영락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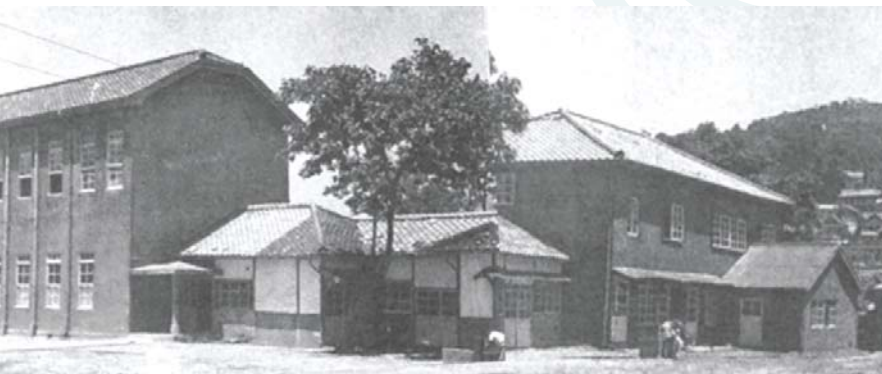
가 자리하고 있는 경성대교회였다.

미군정은 소위 국가 신도는 (재산을) 철저히 몰수했다. 그러나 교파 신도 문제는 논란이 많았다. 1907년 헤이그 협약에 의하면 승전국은 패전국의 국가재산을 몰수할 수 있어도 개인재산은 몰수해서는 안 된다. 미군정에서 종교를 담당하는 학무국에서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학무국 관리들은 일본 천리교 신자들에게 천리교가 일본 조상을 섬기지 않고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조선 종교로 변화된다면 천리교를 존속시켜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근거해서 천리교는 조선인들을 내세워서 천리교를 유지하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방 직후 천리교 신자들은 친일파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구체화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조선인들을 내세워서 일본 천리교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군정 내부에서는 천리교 재산 문제를 달리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다. 미군정 총무국은 천리교 건물은 비록 사적 소유이지만 군국주의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천리교 건물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들은 강제로 일본 천리교 건물을 접수했다. 미군정이 이렇게 강력하게 천리교 건물을 몰수하는 데는 한국인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대
영락교회80년사 집필자



조선신학교 교사로 사용했던 동자동 천리교 본부, 『한신대학50년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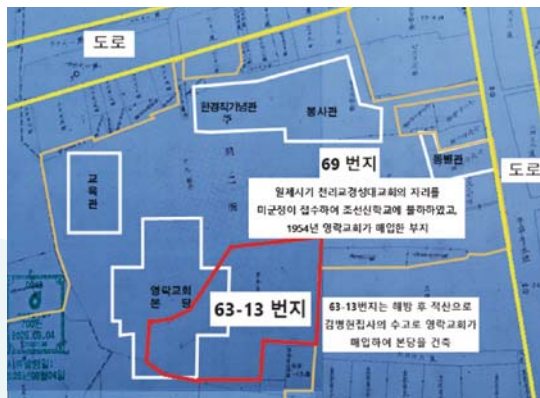
1970년대 초까지 남아있던 영락교회 초기 건물들.
왼쪽부터 베들레헴성전, 사무실, 베다니실

들의 여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조선인들은 한 반도에 있는 모든 일본인의 재산은 그것이 사적 재산이든지, 국가재산이든지 관계없이 모두 조선인들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군정의 천리교 재산 처리 과정과 조선신학교¹⁾ 재건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 장로회신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일부 인사들이 서울에 장로회신학교를 세우고, 그 이름을 조선신학원이라고 붙이고, 교회당 건물에서 교육했다. 조선신학원 관계자들은 해방되었을 때 새로운 교사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는데, 당시 이사장인 김종대 목사는 일본 천리교 건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종대 목사는 일제 말에 일본과 협력했으며, 해방 후에는 기독교남부대회의 서기를 지냈다. 그가 중심이 되고, 송창근, 김재준, 최윤권 목사와 이용설 장로 등은 천리교 건물을 인수하여 조선신학원으로 사

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로교 교역자양성을 위해 건물이 필요하다고 미군정에 호소했고, 결국 이들은 조선신학원(미군정 문서에는 장로회신학교라고도 기록됨)의 이름으로 일본 천리교 건물을 인수했다. 한경직 목사는 이 과정에서 통역으로 도움을 주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천리교경성대교회가 있었던 69번지와 공원부지였던 지금의 석조예배당 63-13번지

1) 조선신학교는 원래 조선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1940년에는 경기도지사(해방 후에는 서울시장)의 인가를 받은 학원으로 출발했으나, 1947년에는 당시 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조선신학교로, 1951년에는 대한민국 문교부로부터 한국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당시 일본 천리교는 서울 동자동의 본부 외에도 40여 곳의 교회를 두었는데, 조선신학원이 이 중 상당수의 건물을 인수했다. 그리하여 서울역 앞 천리교 본부건물에는 조선신학교와 야고보교회, 그리고 가장 큰 교회 건물인 경성대교회에는 여자신학교와 영락교회, 그리고 충무로 건물에는 선린형제단과 경동교회가 세워졌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미군정으로부터 조선신학교 이름으로 임대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을 조선신학교의 허락하에 해야 했다.

한경직 목사는 원래 조선신학교를 창립한 사람들과 가까운 사이였다. 송창근, 김재준과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1940년을 전후하여 조선신학원 창립 때에도 이들은 한경직 목사에게 참여할 것을 권유했

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경직 목사는 조선신학원 창립에 함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월남해서 다시금 서울에서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다시금 한경직 목사에게 조선신학교에서 함께 일할 것을 요청했고 그는 여기에 동의했다.

미군정이 천리교를 접수한 것은 1945년 11월 2일이었고, 곧이어서 11월 5일 조선신학원 관계자들이 미군정을 방문하여 임대 협상을 했고, 11월 7, 8일에는 우선 6개의 천리교회를 조선신학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임대를 결정한 것은 11월 15일이었다. 이때 천리교 8개 교회를 임대했다. 영락교회가 시작한 자리는 그중의 하나였으며, 가장 시가가 높았다. 당시 가장 큰 천리교회 3개는 다음과 같다.

교 회 명	주 소	대 지	건 물 수	지 가	건 물 가 격	현 재
조선포교관리소	중구 고시정 15번지	3,256평	15채	17,499.15원	40,255.70원	성남교회
경성대교회	중구 영락정 2정목 69번지	1,870평	9채	33,428.60원	57,700.00원	영락교회
안경교회	중구 동사헌정 26-6번지			2,550.00원	6,180.00원	경동교회

출처: 김일환, “미 군정이 조선신학교의 천리교 재산 임대 과정에 관한 재검토” [한국교회사학지] 67집(2024), 39-77 참조

미 군정팀의 11월 16일 기록에 의하면 조선신학교와 서울시 군정은 서로 임대를 위해 협상했는데, 임대료는 전체 가격(대지와 건물) 183,416.47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로 나눈 3,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매월 임대료를 어떻게 부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용산교회도 천리교 건물을 임대했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용산교회가 임대료를 부담한 것 같다. 만일 용산교회가 임대료를 부담했다면 다른 교회도 그 전례를 따랐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신학교는 천리교의 건물을 인수하면서 천리교

본부에 신학교를 옮기고, 이와는 별도로 천리교경성대교회(영락정 69번지)에 여자신학교를 별도로 세우기로 하고 한경직 목사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 여자신학교는 1946년 봄 학기부터 시작했다. 한경직 목사는 여자신학교 교장이면서 동시에 조선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다. 여자신학교의 사감은 나중에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이 된 공덕귀 전도사였다. 여자신학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조선신학교 여자부로 바뀌었고, 결국 조선신학교 내에 흡수되었다. 나중에 세워진 영락여자신학교는 해방 후 여자신학교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만남**



햄버거는 사랑을 싣고



홍보출판부와 사랑부 사랑의 결연

십여 년 전 중등부 교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학생들과 1박 2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는 50주년 기념관 2층 유치부실에서 진행하지만, 다른 부서가 이미 예약을 해서, 결국 수련회는 사랑부 예배실로 정해졌습니다. 사랑부 예배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어리둥절해 하며 “여기서 수련회를 해요?” 사랑부의 낯선 모습에 “나 집에 갈래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당시 저를 포함한 몇 분의 선생님을 당황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년도 부장 장로님과 인연으로, 작년에 이어 홍보출판부와 사랑부는 사랑의 결연을 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작은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사랑부 원생과 교사들의 모습 덕분에 두 부서 간의 화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형일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전도부 군전도팀장
안수집사회 총무

조금은 특별했지만 가장 아름다운 예배

올해는 한 분의 권사님께서 “사랑부에 다시 방문하여 기쁨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해 주셨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준비하여 방문했습니다. 햄버거는 홍보출판부의 사랑을 듬뿍 담아 전달되었고, 아이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사랑부예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중에 앞으로 나와 손 흔들며 돌아다니고, 알 수 없는 몸짓과 불명확한 발음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영락교회를 다녔지만, 제게 사랑부는 ‘장애인이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고정된 이미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며 스치듯 바라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 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불편한 몸만 보고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제 편견과 한계를 반성했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두 번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들 말하지만, 사랑부와의 끈끈한 정을 이어 가고자 세 번째 만남도 기약하고 있습니다. **만남**

"교회 안의 작고 따뜻한 만남을 위하여"



어느 봄날 교구모임 속깊은 교제의 밤

지난 4월 말, 중구·용산교구 66구역(구역장 최혜진 권사) 모임이 박홍준 장로님 댁에서 열렸습니다. 박 장로님 부부께서 저녁 시간 자택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정성 어린 식사를 마련해주셔서, 평소 직장 때문에 낮에 모이기 어려웠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박지운 교구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누기 어려웠던 일상 속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수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역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있는가?”



강상진 장로
중구·용산교구
기획위원회
영락교회공원묘원

개인화, 익명화된 교회... 구역예배의 추억 아련

수백, 수천 명이 한자리에 모이지만, 정작 이름을 알고 안부를 묻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밝은 미소와 인사 뒤에 아픔과 외로움을 안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마저 점점 개인화되고 익명화되는 오늘날, 우리는 진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되문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들 기억 저편에 깊이 남아 있는 구역예배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따뜻하게 마음을 데워주는 그 시간들의 기억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과 이어지던 그 공간

어린 시절이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시기에 함께 했던 구역예배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작은 거실 한쪽에 둘러앉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은 없었지만, 서로의 삶을 나누고 소박한 간식 하나에도 웃음이 넘쳤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고 사랑하게 되었고, 신앙이 ‘삶과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함께 기도했고, 자녀의 시험을 위해 중보했으며, 작은 기쁨도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 삶의 자리 안에서 또 작고 따뜻한 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교제 없는 외로운 신앙, 풍요 속 결핍 마주할 뿐

오늘날 많은 교회가 대형화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한 축복입니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예배드리고, 선교, 교육, 구

제, 문화사역 등 다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교회, 이름은 알아도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 풍성한 예배 속에서의 외로운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결핍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살아 있는 주님의 몸 된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출발점으로, 구역예배와 구역 중심의 소그룹 모임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작은 공동체 회복, 구역중심 소그룹에서 시작하자

구역 중심의 소그룹은 교회 안에서 이름을 부르고, 삶을 나누며, 신앙을 함께 붙들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인간관계가 점점 더 약해지는 이 시대에, 이러한 '작은 공동체'의 회복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구역 소그룹을 통해 우리는 얼굴을 알고 교제하는 진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라는 소속감을 주는 참여와 헌신의 자리,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외롭고 아픈 이들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바쁜 일상, 다양한 구성원, 부족한 시간 등 현실적인 제약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구역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전



통적인 구역예배의 형식에만 머무르기보다, 구역 중심의 소그룹,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구역예배, 직장인·청년·장년 등 맞춤형 모임, 혹은 취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소모임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관계와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만 살아 있다면, 방법은 시대에 맞게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작은 거실과 골목, 심지어 온라인 공간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작고 따뜻한 구역모임은 우리의 신앙에 숨 쉴 공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잊고 지냈던 그 자리를 다시 떠올리며, 우리 교회가 '서로를 잘 알고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도해봅니다.

그 시작은 어쩌면, 아주 작고 조촐한 구역모임에서부터일지 모릅니다. **한남**

독일 장기 출장 중 돕는 손길을 더하신 하나님

내년 상반기에 현지 파견을
나가주면 좋겠어

분주했던 마음

작년 말 존경하는 임원분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회사 근처를 산책하던 중, 건네신 뜻밖의 말씀에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다소 갑작스럽게 시작된 장기 출장은 어느덧 마지막 달인 여섯 번째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십여 년 전 가족과 함께 이곳 독일에서 몇 년 간 지낸 적이 있어 생활 환경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큰 만큼, 출장 기간에 어떤 결과라도 얻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크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분주한 제 마음과 달리 현실의 여러 상황은 종종 답답함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커진 조바심 때문에 멀리 떨어진 동료들에게 원망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만큼 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김용진 안수집사
안양·수원교구
예산위원회 팀장
삼성물산 글로벌태양광TF



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업무 성과와는 멀어져 갔고, 늘 기도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준 가족들의 따뜻한 안부와 격려도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어느새 희미해지곤 했습니다.

감사와 기도의 회복

그렇게 분주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이곳의 한 도시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노트 한 권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좋은 노트를 저렴하게 산다는 생각이었는데, 일자별로 구분된 노트의 지면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던 중, 매일 밤 아이들과 감사 노트를 적던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제가 비로소 스스로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며 일기처럼 적어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일상 속 감사와 기도 생활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의 기도’를 비롯해 다양한 기도의 형식이 더해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떠올리며, 이곳 한인교회의 새벽기도회를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혼자 떠나왔다는 생각에, 어느 곳에서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지내며, 그저 외롭고 힘들다고 불평하던 제 모습이 너무 죄송했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을 때,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만 매몰되어 복잡하게만 여겨졌던 주변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는 제게 넓은 시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간혀 있던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새로운 마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발 중인 사업에 대해 경험을 가진 현지 직원들을 제게 붙여 주셨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함께할 후배 주재원 파견도 확정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더해 주심을 느끼며, 이제야 비로소 조금 더 멀리 바라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돌이켜 보면, 제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항상 선명하게 보여주셨고,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제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쌓았던 수많은 성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 남겨진 잔해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 역시도 제 생각에 갇혀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자리에서 정작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전하



아침 출근했을 때 회사 창밖에 떠오른 무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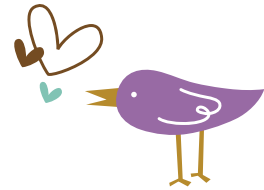
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고, 저를 통해 일하시길 바랐던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도울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 기도의 중심에 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이 더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알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세상의 어려움이 닥쳐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허락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처음 목표한 일들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곳을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고, 또 언젠가 기쁨으로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 곳에 머무는 동안 『말씀 산책』과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사랑으로 여러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채워주신 영락의 모든 지체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남**

하나님 향한 마음 20%뿐이던 삶 온전히 채우신 은혜 어찌나 큰지



중보기도 봉사 3년 차 은혜의 바다에 풍덩

딸들이 해외 유학으로 나의 곁을 훌쩍 떠나고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되었을 때, 봉사 부서를 찾던 차에 중보기도로 섬기게 되었고 어느덧 3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중보기도 팀장님의 전화를 받고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이후로는 하루하루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중보기도팀의 남한산성 영성수련회에서 조별 나눔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는데, 어느 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막막했지만 ‘산상기도회에 개근해보자, 뭔가 잡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새벽예배부터 저녁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내 안에 벅찬 은혜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효순 권사
마포·영등포교구
영락기도대 평일기도팀

두 딸 앞길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격려

내 집 마련을 위해 2년 동안 작성 헌금을 하며 기도한 끝에 마포에 거주지를 허락해 주셨고, 2002년 연년생 두 딸과 함께 영락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유년부, 초등부 찬양대로 활동하면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CebC예배’와 ‘COT 워십팀’에서 백설공주 주인공을 맡으면서 영어에 대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노회가 주최한 찬양대회에서 수상하면서 성악가의 꿈을 키우며 대학부 찬양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의 곱지 않은 시선은 늘 분쟁의 불씨로 남았습니다. 교회 생활 전반을 이해하지 못하던 남편은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는 저를 향해 ‘세뇌하는 것 아니냐’며 은근히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 겨우 5분의 1 정도만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구역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새벽을 깨우시며 구역 식구를 온전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마다치 않으시는 권사님들을 보게 되었고, 그분들을 제 믿음의 멘토로 삼아 흉내라도 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조차 기쁘게 받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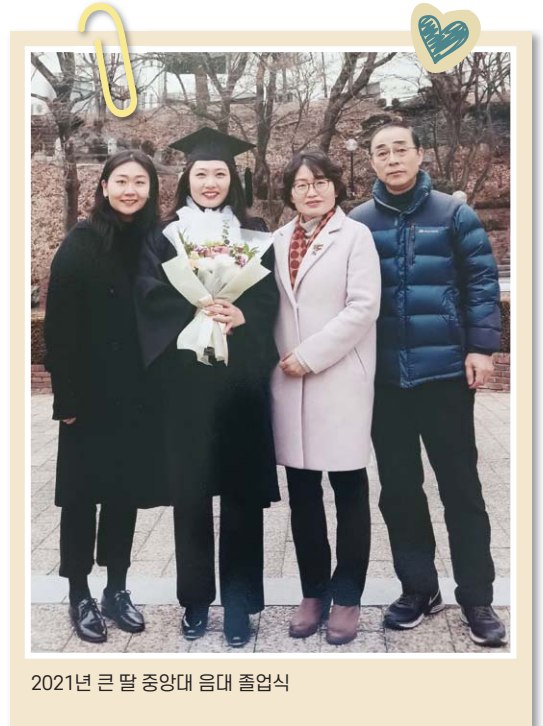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딸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기란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레슨을 받게 되었고, 재수를 통해 장신대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해 삼수하게 되었고, 여러 실패 끝에 편입시험을 통해 무려 세 곳의 음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의 앞길이 캄캄한 밤처럼 느껴질 때마다 새벽을 열어 주시길 기도드렸고, 주안에서 저와 제 딸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구역의 권사님들은 언제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리고성 같던 불신자 남편마저 영혼 구원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추었던 때에도 남편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김운성 목사님의 세상을 통찰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년을 향해 가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족집게 같은 요약과 쉬운 설교 덕분에 남편은 점차 말씀에 적응해갔습니다. 거듭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동안, 여리고성 같았던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큰딸을 한예종 대학원 과정으로 인도하셨고 한경직 장학재단의 전액 장학금과 시립합창단 합격이라는 큰 은혜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작은딸은 독일의 한 기업에서 인턴ships 하게 되었고, 이후 스위스 취리히 대학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비자 문제로 또다시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시티은행의 재정증서만 인정했는데, 시티은행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었기에 그저 절박한 심정으로



2021년 큰 딸 중앙대 음대 졸업식

부르짖었습니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학교 OT에 참석한 딸은 중동 출신의 한 학생을 통해 기적처럼 비자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태산을 평지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2일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니,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것은 겨우 ‘5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끄시고 제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만남**



복음통일 그날 속히 오기를...

2025 북한선교대회 은혜 속에 마쳐

북한선교부(부장 김광식 장로)는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출애굽기 3:5, 10) 표어 아래 6월 18일(수)부터 22일(주일)까지 복음통일의 비전을 나누는 2025 북한선교대회를 개최했다.

- ▶ 6월 1일(주일)에는 대회 첫 일정으로 열린 자유인 예배 700회 기념감사예배 및 통일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는 자유인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 ▶ 6월 4일, 11일, 18일 수요예배(1, 2부)에는 간증과 영상으로 비전을 공유했다.
- ▶ 14일(토)에는 송악기도처에서 기도회를 열어 북한 땅을 바라보며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 ▶ 20일(금)에는 북한선교 금요기도회를 열어 고통받는 북한동포를 위한 합심기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예배를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6월 22일(주일) - 북한선교대회 본 행사

북한선교주일을 맞아 1~5부예배 말씀을 전한 김운성 목사는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여지길 바란다"고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복음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 낭독과 홍보영상도 상영했다.

- ▶ 오후 1시부터 다채로운 행사 진행
 - 탈북 다큐멘터리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 상영(선교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 북한선교 대학부·청년회 연합예배 및 세미나(베다니홀)
- 복음통일 문화콘텐츠 상영, 복음통일을 위한 30일 기도카드 작성, 교육부 공모전 전시(본당 앞 전광판)
- 자유인에배부 공연, 북한문화체험(속도전떡 등), 복음통일음악회(교회 마당 행사)

이날 찬양예배는 '통일은 반드시'(마태복음 7:7~8)의 본문으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좌측 원사진)가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영락교회가 있는 한 우리의 민족복음화, 복음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다"라고 전했다.

마지막 순서로 복음통일학교 수료식도 가졌다.

이번 북한선교대회 목적헌금은 북한교회 재건기금, 복음통일 인재육성(복음통일 장학금, 복음통일 캠프), 자유인 목양사역 지원, 송악기도처 환경개선을 위해 드려졌다.

취재·정리 김경옥 선임기자

자유인에배 700회 기념 감사예배 및 홈 커밍데이 개최

북한선교부는 북한선교주일을 앞둔 지난 6월 1일(주일), 선교관에서 자유인에배 700회 기념 감사예배 및 통일예배를 드렸다. 자유인에배는 1999년 6월 6일 탈북 자유인 5명과 지도교사 6명, 사역자 3명이 함께한 첫 예배를 시작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해로 700회를 맞이하여 자유인과 성도들이 기쁨을 나누었다. 이날 북한선교부 김형찬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자유인에배가 오늘의 700회를 넘어 앞으로 800회, 900회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통일을 기도하고, 통일된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 진정한 통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이승신 하나원장이 참석해, 탈북 자유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영락교회 성도들께 감사를 전했다. 또한 매년 탈북 자유인 대학생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 장학금을 후원해 온 참빛육영재단 이사장 김내영 은퇴장로와 북한선교부 김광식 장로에게 감사의 패를 전달했다. **만남**

취재 이나영 기자



복음통일 문화콘텐츠 공모전 교육부 대상 현주희(일러스트) 일반부 대상 유찬호(영상)

초등부~청·장년 성도 54명 참여
우수상 4명·장려상 8명 시상

북한선교부에서는 <2025 북한선교대회>를 '통일의 미래로 비상하라' 주제로 실시했으며, 특별히 '복음통일 문화콘텐츠 공모전'에 많은 성도, 특히 학생들을 포함한 다음세대가 참여하도록 영상과 일러스트 부문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영상 부문과 일러스트 및 손글씨 부문으로 나누어 2025년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공고 및 신청을 받았으며, 총 54명(학생 31명, 일반성도 23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장년 성도까지 모든 세대의 참여가 이루어진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작품으로 복음통일에 대한 기도와 마음을 표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북한선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발견하게 되어 공모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복음통일 문화콘텐츠 작품들은 6월 22일 북한선교주일에 본당 앞 전광판을 통해 상영·전시되었으며, 찬양예배 시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 영상이 송출되어 모든 성도가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모든 작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오른쪽 상단 Q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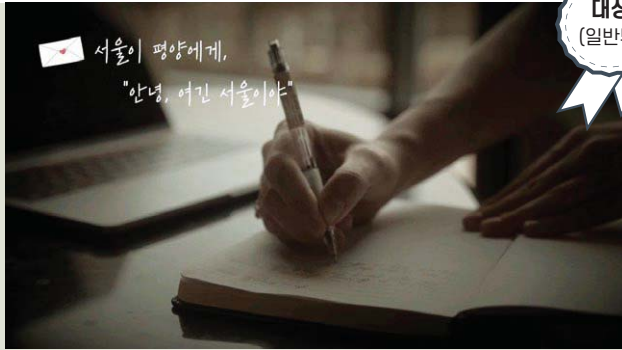


현주희_자유인예배부 중등부 | 일러스트 <복음통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북한에도 반드시 전해져서 북녘에도 영락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의미를 그림

2025 북한선교대회 문화콘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교육부 수상자	일반부 수상자
대 상		일러스트부문 현주희 (자유인예배부 중등부)	영상부문 유찬호 (고양·파주교구)
우 수 상	일러스트	차이안(중등부)	김찬미(청년회)
	영상	이요셉(중등부)	김지연 집사 (안양·수원교구)
장 려 상	일러스트	이선아(소년부) 김유하(중등부)	엄혜옥 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조위석 은퇴집사 (종로·성북교구)
	영상	이다솔(소년부) 전차윤(고등부)	김해동 (자유인예배부 청년부) 남영강(청년회)



대상
(일반부)

유찬호_고양·파주교구 | 영상 <To You, 서울이 평양에게>

서울의 고등학생이 평양의 또래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형식

문화콘텐츠
수상작



우수상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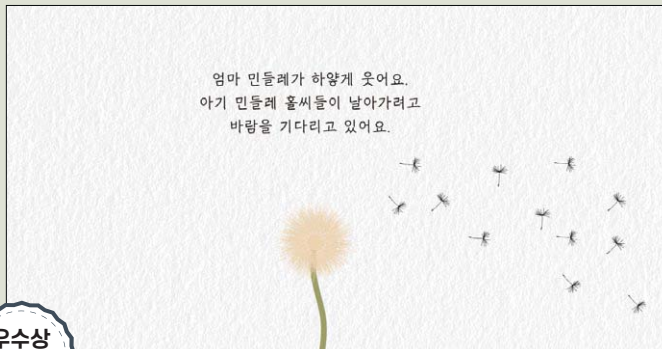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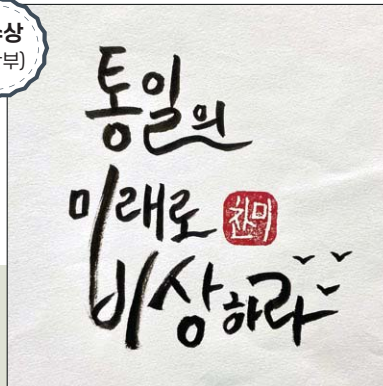
이요셉_중등부 | 영상



우수상
(일반부)

김찬미_청년회 | 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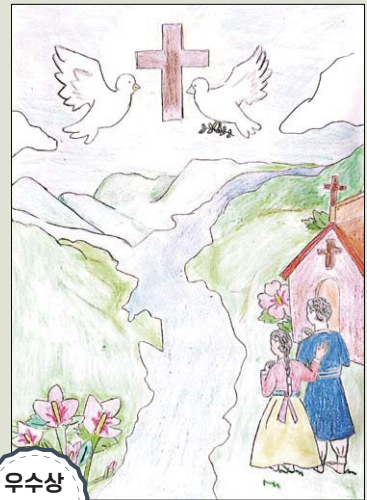
'미래'의 '미'와 '비상'의 '비'를 이어
미래로 향하는 비상이 끊기지 않고 지속됨을 의미



우수상
(일반부)

김지연 집사_안양·수원교구 | 영상 <거룩한 씨앗>

탈북 엄마들을 위해 쓴 짧은 동화.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기쁨으로 거두는 통일의 그날을 표현



우수상
(교육부)

차이안_초등부 | 일러스트

내 작은 기도 응답하신 '세심한 하나님'

“통계·방법론 제대로 배우게...” 꿀피의 기도

안녕하세요. 2025년 1학기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 통계 수학과 연구방법론 수업을 수강한 김연주입니다. 대학원 1학년 첫 학기, 저는 인생 처음으로 '꿀등'을 경험했습니다. 수업 자료실에 제 학번과 함께 기재된 등수를 보고 멍해졌고, 이 사실을 주변에 말했을 때 친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라고, 수업 자료실에 올라온 캡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묘한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1등도 해보고 꿀등도 해본 사람은 흔치 않잖아? 이걸 나만의 특권일 수도 있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고, 그날 이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졸업하기 전까지 통계와 방법론 하나만 큼은 제대로 배우게 해주세요'

뉴코리아국제학교를 통해 선생님 보내주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2025학년도 1학기 뉴코리아국제학교를 통해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대학에서 연구방법론을 오랜 시간 가르쳐 오신 김홍범 뉴코리아국제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특별한 일대일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영락교회에 출석 중인 황선익 선생님과 통계 수학을 함께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수

준에 맞게 설명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기에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을 넘어, 기도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의 작은 기도에 응답해주시는 세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학원 1학기 통계 수업 성적은 저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책에서 읽은 문장이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은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 땅에 정착한 수많은 청년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욱 깊게 와닿습니다. 그들 중에는 북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뉴코리아국제학교를 통해 자신 안에 감춰졌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입시를 준비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장점과 재능을 발휘하며 멋지게 감당해나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천국 드러내는 삶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언제나 묵묵히 섬겨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도 바쁜 이 시대



에, 누군가의 학업과 진로, 나아가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친구 중 한 명도 뉴코리아국제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친구가 이곳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사회 곳곳에서 귀한 인적 자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모두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며, 시간과 마음을 나눈 선생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한 선생님들의 삶을 보며 저는 종종 감동합니다. 단순한 선행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누군가의 재능 열매 맺게 섬기고 싶어

이번 1학기 뉴코리아국제학교의 여정은 저 역시 누군가가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재능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

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로 섬겨주신 김이분 권사님, 수업마다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준비해주신 정성훈 전도사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섬겨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섬김'이 가진 힘을 경험했습니다. 섬겨주시는 분들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끝부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연고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제 삶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 인연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코리아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응답의 통로가 되어주신 모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남**

김연주 성도_뉴코리아국제학교



인제 기드온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2여전도회, 김운성 담임목사와 봉헌예배

지난 6월 13일은 인제군 가리산 자락의 기드온교회에서 봉헌감사예배가 있던 날입니다. 작년 선교대회의 헌금과 제2여전도회의 헌신으로 기드온교회의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봉헌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답사를 위해 기드온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병사들이 군화를 벗고 들어가야 했던 열악한 상황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럼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주시는 노 권사님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배는 김운성 목사님을 모시고 네 분의 전임 회장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임원들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특송을 불렀습니다. ‘말씀이 살아 숨 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저희의 고백이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맑은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고은수 권사
성남·분당교구
제2여전도회 회장



2025 구국성회·결연축제 열려

2025년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6·25 상기 구국성회 및 결연축제'가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교인연합회 주관으로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김운성 담임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진행되어 모든 참석자에게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주었습니다. 결연축제는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역의 일환으로, 군 장병들이 전역 후 정착할 수 있는 지역 교회를 찾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입니다. 이 사역은 전국 각지의 교회가 참여하여 자교회를 소개하고, 등록하는 장병들과 결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군선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1,004개의 군 교회 중 200여 교회의 단독 건축을 포함하여, 연합 건축까지 합하면 총 650개의



최 인 전도사
선교부 전담

군 교회를 건축했으며, 기도와 물품 후원에서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군인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 위에 세워진 선교의 결과라 믿습니다.

68명 장병 영락교회와 결연

우리 영락교회 선교부, 대학부, 청년회, 전도부는 다음세대인 군 장병 청년들이 군 생활을 하며 신앙을 잃지 않고, 복무 중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전역 후에도 영락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한 결과 68명의 군장병들이 결연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번 결연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군대를 주무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전, 군목사님들과 각 교회 교역자분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목요일(19일)에 많은 비 예보로 인한 염려가 있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면 결연 행사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일 행사 중에는 날씨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행사가 끝나고 정리 시작 무렵부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무하고 계심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마무리되었지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영락교회와 결연한 68명의 군 장병이 전역 후에, 영락교회에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기아·질병·절망의 땅 콩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34년 전 파송... 킌사사에서 '거리의 교회' 시작

1991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저를 콩고민주공화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킌사사 거리에는 구걸하는 아이와 버려진 장애인이 많았습니다. 이는 1990년 군인 폭동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빵을 나누며 '거리의 교회'를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첫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다섯 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 건축도 마쳤습니다. 콩고는 비옥한 땅, 풍부한 수자원, 구리, 금, 다이아몬드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국민 다수는 안타깝게도 빈곤과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경식 선교사
콩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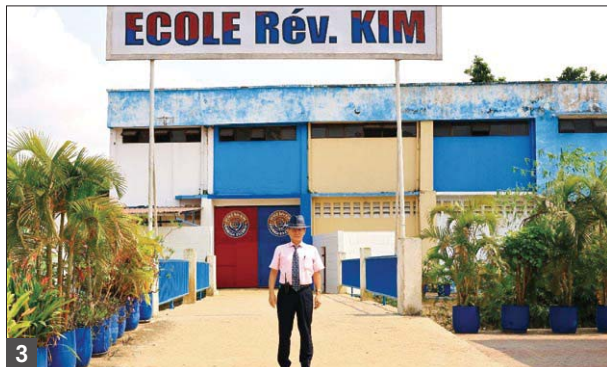
운명에 영혼 맡긴 이들... “주님께 삶 맡기자” 설교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지가 약합니다. 숙명론적 사고에 영혼을 맡기고 삽니다. '이건 내 운명이다'라고 체념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쉽게 포기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삶을 맡깁시다”

이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 1996년에는 공동묘지 옆의 열악한 지역에 첫 학교를 세웠습니다. 전기도 없는 곳이었지만 4대의 컴퓨터를 갖추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관해 좋은 소문이 퍼지자, 어느 날 교육부 고위 인사가 학교를 방문해 격려하며 학교 확장을 요청하던 자리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EBS(교육방송국)를 벤치마킹한 CEBS방송(Congo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학교로 출발, 초·중·고 5곳, 대학도 개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0년, 기적적으로 방송국을 개국하여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하루 19시간 교육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파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초·중·고등학교는 현재 다



1 레베렝김 대학병원 건축현장 2 뽕빠쥐 초등학교 학생들 3 에콜레베렝김 뽕빠쥐 초·중·고등학교
4 콩고 브로드캐스팅시스템 교육방송국 5 인질리교회에서 채플 드리는 모습

섯 곳으로 확장되었고, 5,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아침 채플과 신앙 훈련도 더불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대학교도 개교하여 호텔 경영학, 미디어 언론학, 컴퓨터 전산학, 경제학 등 4개 학과로 시작했습니다.

사경 해마다 은혜로 복귀… 의대, 법대도 인가

그해 저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안타깝게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맸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스텐트 시술을 받고 회복되어 다시 사역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웬만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을 인가받았습니다. 특히 의대

는 한국인 선교사가 아프리카 대륙에 세운 최초의 의과대학입니다. 대학의 교훈은 '진리와 자유'이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6년 8월 개원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8층 약 3,000평 규모의 병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의대생들의 임상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콩고의 내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자원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이 땅의 기아, 질병,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콩고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

레크미 목사가 지피는 네팔의 '행복 불씨'



한국 유학 후 귀국... 카트만두에서 사역 시작

레크미 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2007년, 영락교회에서 운영하던 창전동 외국인 근로자 쉼터였다. 당시 레크미 목사는 영락교회 후원으로 아세아신학대학에서 수학하며 네팔 근로자들을 돌보는 봉사자로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

2013년 네팔로 돌아간 레크미 목사는 시골에서 상경해 수도 카트만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보호자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목회를 시작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당시 보호자들은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병원 담벼락 근처에서 먹고 자며 환자를 돌봐야 했다. 그들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 생긴 레크미 목사와 우사 사모는 밤마다 병원 주변을 찾아다니며 가장 어려운 형편에 놓인 보호자를 집으로 데려와 먹이고 재운 후, 이튿날 아침 다시 병원에 데려다주는 사역을 오랫동안 이어갔다.



김용석 은퇴안수집사
동대문·종량교구

더 많은 환자 보호자 보살피자... 교회 세워

봉사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보호자를 돌보며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짓자'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사 사모는 결혼 패물을 팔고, 한국에 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까지 보태 카트만두 발라주 지역에 교회 부지를 구매했다. 그리고 여러 후원자의 도움으로 약 100m² 규모의 단층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다.

레크미 목사를 다시 만난 것은 2017년 네팔에 갔을 때 카트만두 발라주 어넌떠쿠시(영원한 낙원)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서였다. 70여 명의 성도와 함께 눈물의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당은 내가 방문하기 2년 전에 대지진으로 인해 건물 벽에 금이 가 무너질 위험이 있었으며, 공간도 좁아 30도 넘는 한낮에 땀별 아래에서 어린아이 20여 명이 교회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

영락성도들 후원... 2층 교회로 재단장 헌당예배

귀국 후 그해 겨울, 어넌떠쿠시교회 재건축을 위한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오랫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겨온 오선화 장로, 김영옥 권사 등과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던 김내영 장로를 중심으로 성도 40여 명이(중구 열매회 등) 뜻을 모았다.



- 1 카트만두 발라주의
어넌떠쿠시교회
- 2 레크미 목사 부부
- 3 어넌떠쿠시교회의
아동부예배

이들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선교부의 지원으로 2019년 5월에 재건축 공사를 시작해 10월에 원래 건물 두 배 규모의 튼튼한 2층 교회가 완성되었고 영락교회 은퇴장로 5명과 권사 10여 명이 참석해 헌당예배를 드렸다.

현재 어넌떠쿠시교회는 발라주 지역과 새로 개척한 절긴 지역 두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며, 레크미 목사는 네팔 공휴일인 매주 토요일에 두 지역을 오가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이 두 교회에서는 130여 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고 있고, 젊은이 예배에 20여 명, 아동부 예배에 4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는 큰 그림 '영원한 낙원'

올해로 설립 11년 차를 맞은 어넌떠쿠시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비전을 품고 있다.

첫째는 네팔 전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불씨가 되는 것이다. 현재 네팔은 인구의 80% 이상인 힌두교도에게 다른 종교를 전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선교사나 수녀들이 구금되거나 강제 출국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지인 목회자만이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

다. 레크미 목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다. 후원회와 선교부의 도움으로 현지인 동역자를 양육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음식도 대접하고 때에 따라 선물도 나누며 힌두교인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둘째는 절긴 지역의 예배당 건축이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성도 수에 따라 절긴 지역에도 예배당을 지을 토지를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셋째는 성도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센터 설립이다. 세계 최대 빈민국 중 하나인 네팔에서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미용, 재봉, 전자기기 수리, 자동차 정비 등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훈련센터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

네팔에서는 매우 드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형과 누나를 목회자로 둔 레크미 목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지금도 기도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언젠가 이루어질 네팔 전 민족의 복음화를 그리면서 말이다. **만남**

은혜로 채워가는 믿음의 청사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2024 청년회 임원진과 함께

어긋나고 달히던 삶의 계획들... 깊어진 공허

제 이름에서 신앙의 깊이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의 신앙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조차 계획해야 할 정도로 알고 흔들리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도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때쯤 교회 봉사를 해볼까?'라는 생각에, 영적인 삶보다는 세속적 가치와 인간적 욕망에 집중했고 그것이 행복해지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획했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잃어갔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부딪히며 간절히 바라던 길은 바로 눈앞에서 달히는 듯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

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물질적 축적이나 육체적 쾌락에 집착했고, 그럴수록 삶의 의미마저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청년회에서 발견한 진정한 사랑

그러던 중, 팬데믹이 한창이던 어느 날 "청년회 한번 가볼래?"라는 권유에 별생각 없이 공동체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꾸는 땅'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깊은 교류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 없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과 가족에게 닥친 아픔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나 의무감이 아



조경배 성도
청년회 선교차장
꿈꾸는 땅



2025 청년회 임원진과 함께

닌, 한 사람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는 '살아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 때문인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마음속 의문은 어느새 '나도 이 공동체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이 확신으로 이어져, 다음 해에 청년회 회장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덧 3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사역 중에 갈등도 있었고, 지치기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경험들이 제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계기가 되었던 그들의 사랑을 잊기도 전에, 저는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모양의 사랑을 받았고, 저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단지 받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때로 내 연약함과

민낯을 마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하지 않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이기심과 편견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상대의 손을 잡아 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느리고 불완전해도 예비하신 은혜 믿으며 전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이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적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주는 '은혜'였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울고 웃는 모든 경험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인생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경주가 아니며, 계획이 완벽하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느리고 불완전하더라도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만의 청사진을 주님과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만남**

하나님과 데이트, 신앙 업데이트

대학부 화요기도모임 'Up-date'

교회 트락서 찬양, 'Up-date 기도회' 첫 홍보의 장

지난 5월 11일(주일), 영락교회 3부와 4부 예배가 끝난 후, 교회 광장에는 찬양의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찬양 소리에 발걸음을 멈춘 성도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한 곳은 단순한 거리 공연이 아닌 대학부 'Up-date 기도회'의 첫 공식 홍보의 장이었습니다.

대학부를 넘어,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Up-date 기도회를 총괄하는 정찬우 팀장(대학부 엘리야마을)은 첫 버스킹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동안 대학부 내에서만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회를 알려왔지만, 외부 성도들과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비전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생소한 분이 많겠지만, '대학부 내 자체 기도회가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정찬우 팀장

'Up-date'라는 이름은 글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데이트(기도)'를 통해 '나의 신앙을 Update'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 팀장은 "이 기도회는 단순한 예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을 통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돕는 모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씨

Up-date 기도회의 시작은 2019년 대학부 겨울수련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그 수련회에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정 팀장은 그 감동을 계기로 기도모임을 제안했고, 2020년부터 대학부 활동팀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부 학생회장을 섬기던 중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청년들 사이에서도



‘마커스워십’처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기도회는 현재 23명의 팀원이 함께하는 뜨거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찬양·말씀·기도 어우러지는 예배

Up-date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마지막 주 제외) 저녁 7시 30분,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찬양, 말씀, 기도가 어우러진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요일예배나 금요찬양예배와 겹치지 않는 시간대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는 찬양팀, 방송팀, 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찬양팀은 드럼, 피아노, 베이스, 일렉기타 등의 세션과 싱어, 인도자로 구성되어 찬양을 준비합니다.
- 방송팀은 자막, 조명, 카메라 등을 담당하며
- 행정팀은 홍보물 제작, 장소 예약 등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영락의 모든 청년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 꿈꿔

초기에는 모든 것을 청년들만으로 준비해야 했기에 부담이 컸지만, 그 자체가 큰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김철환 전도사님께서 말씀과 신앙 훈련을 함께하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운영을 넘어서, ‘청년 중심의 기도 공동체’라는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 팀장은 “청년들 사이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삶의 예배자로 성장하길 소망해요. 앞으로의 청년회, 국제예배부 등 다양한 청년 사역과의 연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전했습니다. **만남**

* 함께 기도해주세요!

1.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2.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3.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의 불씨가 이어지도록

취재 승윤영 기자



“삶이 곧 예배, 연주는 기도”

청년회 라이프워십 세션팀

매주 찬양예배 책임지는 5인조

베다니홀에서 청년회 예배팀 '라이프워십(Life Worship)'을 만났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들의 예배 현장은 한 편의 고백과도 같았다.

그날 베다니홀은 조용했지만, 깊은 감동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찬양 가사와 함께 건반,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가 어우러진 세션의 선율은 곧 장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무대 앞편에서 노래하는 싱어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음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세션(Session) 팀의 헌신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라이프워십은 지난 1999년 4월 첫째 주일, 영락교회 젊은이예배 찬양팀으로 출범한 이후, 올해로 26년째 사역을 이어온 전통있는 예배팀이다. 수많은 청년이 거쳐 갔으며, 그 가운데 '세션팀'은 음악으로 예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해왔다.

청년회 사역팀의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쳐 1년 전 결성

Life Worship Session



1. 드럼 | 강성규 성도

강성규 성도는 드럼이 음악에서 '그루브(groove)', 다이내믹, 템포를 조절하는 핵심 악기라고 강조한다. 같은 곡이라도 드러머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며, 드러머는 마치 음악을 '맛'있게 만드는 요리사와 같은 역할에 해당한다고 비유했다. 그는 가수 가호, 써니힐과 세션 경험이 있으며, 인천 평화창작가요제에서 3위를 수상한 경력도 있다.

- **사용 악기** 개인 - Gretsch Broadcaster USA / 교회 - Pearl Master
- **좋아하는 아티스트** Clemons Poindexter



2. 퍼스트 건반 | 박혜원 성도

건반의 섬세한 터치와 감정 표현에 매료된 박혜원 성도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건반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Johan Kim과의 협연한 경험도 있는 실력파로,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아왔다.

- **사용 악기** Roland RD-2000
- **좋아하는 아티스트** Cory Henry, Jacob Collier

된 세션팀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럼, 건반 2명, 베이스, 일렉기타로 구성된 팀원 대부분은 대학에서 실용음악 혹은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이들로 지금까지 매주일 찬양예배를 책임지며 섬기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연주자에 그치지 않고, 찬양 속에서 성령의 흐름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에 맞춰 음악의 흐름을 조율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음악으

로 예배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찬양이 곧 헌신이며, 연주가 곧 기도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다섯 명의 라이프워십의 세션팀은 지난 1년간 끈끈한 팀워크와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교회 내 다양한 예배와 행사에서 헌신적인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찬양예배에서 이들의 연주를 마주하게 된다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만남**



3. 세컨드 건반 | 이진아 성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반주를 시작한 이후, 꾸준히 찬양 사역에 헌신해온 예배자인 이진아 성도는 중학교 3학년부부터는 대예배 찬양팀 반주자로 섬겼다. 고등학생 시절 함께했던 팀원 중에는 현재 유명 CCM 사역자도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수준 높은 찬양사역 환경에서 성장해온 그는 교회 중심의 사역에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 **사용 악기** Yamaha MOTIF XS8 (2007)
-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스라엘 휴튼, 커크 플랭클린



4. 베이스 | 안재현 성도

음악의 저음을 담당하며 다른 악기들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베이스의 역할에 매료되어 전공을 선택한 안재현 성도는, 아뮤즈 소속 밴드 연습생으로 활동했다. 그는 유인원이라는 밴드에서 활동하며, 인천-태안-대전 등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연주를 펼친 경험도 있다. 현재 창작 국악뮤지컬 '마애종' 세션으로도 참여 중이다.

- **사용 악기** Fender 62 Reissue Jazz Bass
- **좋아하는 아티스트** Anthony Jackson



5. 일렉기타 & 리더 | 박수찬 성도

라이프워십의 리더 박수찬 성도는 강한 피킹과 비브라토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기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데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승환, ONLEE 등 다수의 음반 세션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에서 일렉기타를 전공했다.

- **사용 악기** Fender Custom Shop 61 Reissue (1991), James Tyler Japan Classic (2018)
- **좋아하는 아티스트** 스티비 레이 본

헤어 디자이너 승급 하루 전날 목회자의 길 걷게 하신 하나님

적녹색약 알고도 헤어디자인과 전공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 헤어 디자인과를 전공하고 미용실에서 근무했었던 저는 적녹색약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적녹색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쉽게 구분하는 색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색깔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이자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당시엔 치료법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헤어 디자인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제가 근무했던 미용실의 원장님이 권사님이셔서 주일 성수를 하는 미용실이었기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를 돕는 스태프로 근무하고, 주일에는 청년부와 청소년부에서 찬양 인도자로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척

일상생활에서는 색약이라는 질환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용 현장에서 염색이라는 기술을 하

다 보니, 색에 대해 민감하게 확인하고 반응해야 하는데, 색약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에 방문한 고객과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저에게 “제 머리 색이 뭔가요?”라고 고객이 질문했습니다. 그 순간 말문이 턱 막힌 저는 고객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카운터로 가서 고객의 이름을 검색해 이전에 염색했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염색한 기간을 계산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이전에 ○○색으로 염색하셨었네요. ○달 전에 하셨으니까, 지금은 색소가 많이 빠진 상태라 뿌리 염색하시면서 색소만 넣으시면 훨씬 예쁠 것 같아요”라고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척, 다 아는 척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죄책감에 지옥 같은 나날

모태신앙으로 20년이 넘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하게 살아야 하고, 나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기독교적 교육을 받았던 저는, 그렇게 손님에게 염색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 그때마다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디자이너로의 승급을 앞두고 매일 기도했습



김예담 전도사
청년회
예배찬양팀(수요)

니다. ‘색약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색약을 가지고도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질병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공하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색약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의 저는 매일 수십 명의 고객을 응대하며 여전히 상대방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퇴근 버스에서 기도 중 본 환상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치고 퇴근 길의 버스에 승차했습니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앉아서 죄책감에 가득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들으며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채꼴 모양의 장소, 무대 같은 곳에 제가 서 있었고, 수백수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다 같이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끝나자, 이번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제가 마이크를 손에 들고 뭔가를 말하고 있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가장 행복… 미용사 내던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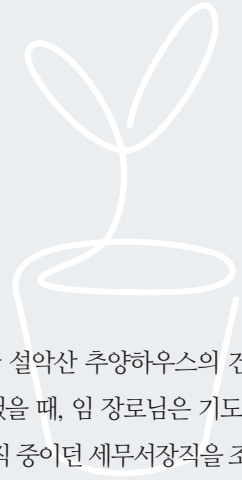
그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고, 벽차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부와 명예를 쌓기 위해 양심을 버리고 속이는 지금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해하



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주일마다 찬양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은 결국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전할 때 찾아온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퇴근 버스에서 주의 종 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저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맞는지 반년 정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디자이너 승급 하루 전에 미용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설 때마다 감사·설렘 넘쳐

목회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지금의 삶이 정말 행복합니다. 과거에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환상이 매주 수요기도회 찬양을 인도하는 제게 실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청년회 예배에 설교자로 서게 되면서, 두 번째로 보여주셨던 환상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벽차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을 사 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남**



참빛육영재단 35년... 기독교 인재양성 외길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한복음 1:9)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함이라’(디모데후서 3:17)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 ‘참빛육영재단’으로 장학회 명칭을 정했다.

임정산 장로의 극진한 교회 사랑과 헌신

한경직 목사님의 뛰어난 인격, 감동적인 설교, 애국애족 정신의 목회 사역과 함께 80년의 영락교회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도 함께했다. 한 목사님의 사랑과 리더십 뒤에는 존경받는 훌륭한 동역자가 많이 계셨는데, 그중에서도 故 임정산 장로님은 교회의 마지막 큰 어른이었다. 한 목사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 부르심에 조건 없이 순종했고, 교회 사역을 위해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응답했다. 한 목사님이 놓어준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들의 안식처를 위한 설악산 추양하우스의 건립 추진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임 장로님은 기도 끝에 결단을 내리고, 당시 재직 중이던 세무서장직을 조기 사임하면서까지 사역에 전념했다.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 위해 장학재단 설립

한경직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특히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영락학원을 설립하셨다. 영락고등학교와 영락상고의 많은 학생이 등록금조차 없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임정산 장로님은 고액의 현금과 함께 장학재단을 설립(1990년)했고, 이어 서초동 소재의 토지(명의 최영실 권사)를 장학재단에 헌물했다. 한 목사님의 복음적인 삶과 목회, 특히 나라 사랑의 정신을 겸비한 크리스천 인재 양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장학재단의 운영 전반을 영락학원이 주관하도록 하고, 영락교회 당회에 이를 보고(1994년, 이사장 안세희 장로)했다.

이후 국가 무상교육이 고등학교에도 확대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 이상으로 격상하여, 신학생과 목사, 선교사의 자녀, 대학부, 보린원, 모자원, 외국인 유학생, 자유인 예배부 등 교회부서를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 개편했다. 2025년에도 참빛육영재단은 23명의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내영 은퇴장로
강남교구
참빛육영재단 이사장

교회 행정, 재정, 기획, 관리에 주요 기반 조성

장학재단을 설립하신 임 장로님의 소천 3주기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말씀하시며 행동으로 실천하시던 기억이 새롭다. 임 장로님의 헌신은 교회의 행정과 관리 분야에 크게 공헌했으며, 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행정장정 및 각 제직부서의 운영 규정을 제정(制定)했고, 교회 제도와 조직에 필요한 사역 등을 꼼꼼히 수립했다. 50주년기념사업 재정부서에도 전력투구하여 헌금의 모금은 물론 몸소 건축헌금을 능력 이상으로 드렸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진남포를 떠난 장로님은 북한 선교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셨으며, 진남포의 고향 교회와 유년 시절을 보낸 평양 신암교회의 재건을 위해 큰 헌금을 했다. 또한 탈북 청년들에 대한 자극한 사랑으로 매년 1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남한산성 주변 교회 소유 토지의 잊힌 지면을 찾아내는 일이나, 교회 상조회 운영세칙을 재정비하는 일 등, 교회의 필요한 자리마다 끝까지 헌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시며 크고 뜻깊은 발자취를 많이 남기셨다.

임정산 장로님의 마지막 기도와 소망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랑의 거목이시며, 하나님 뜻을 따라 평생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사신 한경직 목사의 삶을 기록한 ‘평전’을 출간하는 사역이었다. 그 결과 장로님이 적극 주관하시던 평전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진행중이며, 곧 출간을 앞두고 있어 하늘나라에서도 흠족해하실 것이다.



김운성 담임목사(가운데)와 참빛육영재단 이사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작년 교회 창립주일 설교에서 이철신 원로목사는 신행 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사신 임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훌륭한 선배 어른의 믿음을 기억하자고 당부한 말씀이 기억난다. 임 장로님은 평소에도 겸손한 자세로, 오로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감추는 봉사와 헌신을 보여주셨다. 장학사업도 왼손이 모르도록 드러내지도 않고 은밀하게 하셨으며, 장학금을 지원할 때도 언제나 많이 못 도와주어 미안하다고 하셨다. 임 장로님의 손을 거쳐 선발된 수많은 장학생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지난 35년간 장학금 혜택을 받은 5백 명이 넘는 인원이 넘었고, 목사, 교수, 의사, 직장인 등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임 장로님과 최영실 권사님이 천국에서 기뻐하시리라 믿는다. 임정산 장로님의 기도와 희생 위에 세워진 참빛육영재단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발하는 젊은이들을 길러내어, 한국 사회를 채워가는 영원한 장학재단으로 이어질 길 기도한다. **만남**

칼로리 짹, 영양은 짹 무더위엔 ‘건강 빙수’



무더운 여름이면 늘 기다려지는 시원한 별미가 있습니다. 바로 빙수입니다. 곱게 간 얼음 위에 달콤한 팔, 말랑한 떡, 알록달록한 과일, 부드러운 연유까지 곁들인 한 그릇은 여름의 즐거움을 그대로 담고 있지요. 교회 앞 카페나 동네 빵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주말 오후 가족과 나눠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 따뜻한 풍경이 됩니다.



권오란 권사
중구·용산교구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빙수, 정말 ‘가벼운 간식’일까요?

빙수는 얼음이 주재료라 “살 안 찌는 간식 아니야?”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팔이나 과일이 올라가 있으니 건강한 느낌도 들지요. 하지만 일반적인 팔빙수 한 그릇에는 평균 500~600kcal의 열량과 40g 이상(설탕 8스푼)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어 생각보다 높은 열량과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며, 단맛으로 인해 포만감 없이 ‘더 먹고 싶은’ 마음으로 자극하기도 합니다.

재료만 살짝 바꾸면, 맛도 건강도 두 배

그렇다고 빙수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를 조금만 바꾸면 당류는 줄이고, 영양은 높일 수 있어 훨씬 건강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니까요.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소개합니다.

더위를 달래주는 한 그릇의 빙수도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즐기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연유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무가당 두유

→ 부드러운 질감은 살리고, 포화지방과 당은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일시럽 대신 잘게 썬 체철 과일

→ 수박, 블루베리, 복숭아 등은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 얼음 대신 얼린 두유, 녹차, 코코넛워터

→ 맛은 다양해지고, 건강한 영양소는 덤으로 따라옵니다.

* 단팥 대신 병아리콩이나 삶은 강낭콩

→ 당도는 낮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많아 포만감을 줍니다.



올여름, 건강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작은 선택을 이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빙수 영양 한눈에 비교

항목	일반 팔빙수	가정식 건강 빙수
열량 (kcal)	550~700	250~300
당류 (g)	50~70	15~20
단백질 (g)	8~10	10~12
지방 (g)	10~15	5~8
식이섬유 (g)	0~2	4~6
주요 당원	연유, 시럽, 단팥	과일, 요거트, 견과류 등 자연 유래 당
영양 특징	고당·고열량	저당·고식이섬유,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 홈메이드 '건강 빙수' 레시피

* 과일 아이스 블렌딩

바나나와 블루베리를 얼려 믹서에 갈면,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나옵니다. 견과류나 그래놀라를 얹으면 영양과 맛이 살아납니다.

* 귀리우유 빙수

귀리우유를 얼려 곱게 간 뒤, 플레인 요거트, 말린 무화과, 견과류를 곁들여 보세요. 고소하면서도 포만감 있는 간식이 됩니다.

* 아이들과 함께 빙수 놀이

시럽 대신 꿀 한 방울, 계핏가루, 말린 과일 등을 활용해 보세요. 자연의 단맛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이 됩니다.



미리 서본 목양의 자리... 용기 생겼어요

나그네 환대하듯... 영접해준 영락 중등부

처음 영락교회 중등부에 왔을 때 느낀 감정은 '환대'였습니다. 이종실 목사님을 비롯한 세 분 전도사님의 따뜻한 환대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환대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환대를 받아도 되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달려가는 우리는 동역자

영락교회 중등부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장로님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동역자들이란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제게 충만한 위로를 주었고, 앞으로의 사역 길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중등부 학생들을 바라보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던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좋아했던 한학년 밑의 여학생도 기억납니다.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고자 했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이미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오현석 인턴 전도사
중등부

사역기간: 4월 27일 ~ 6월 1일

인턴전도사는 교회사역 사용설명서 같아

'인턴 전도사'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 교회사역이란 두렵고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며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목회자로서 앞에 서고 성도를 이끄는 자리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를 받아먹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신앙교육과 더불어 목양의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직접 맺고, 성도들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심경 속에, 영락교회에서 인턴십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 배속되어 예배의 전반적인 현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빛과 같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도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몰랐는데, 갑자기 그에 딱 맞는 설명서가 눈앞에 놓인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비 전도사님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처럼 사역을 두려워하는 신학생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락의 모든 형제·자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만남**

‘노년의 적’ 폐렴, 조기치료가 관건



성경 말씀 가운데 호흡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7)*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6)*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흙(먼지)’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께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명의 호흡이 코끝에서 멈추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호흡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폐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생명의 호흡으로 찬양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폐렴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명재 교수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폐렴, 사망원인 3위... 폐렴사망자 98%가 60세 이상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폐렴 사망자의 약 98%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폐렴은 2010년까지만 해도 사망원인 5위였으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현재는 3위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2년에는 사망원인 3위와 4위를 각각 코로나19와 폐렴이 차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이 폐렴과 연관된 점을 고려하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위였던 암 사망률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전쟁,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의 증가와 맞물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폐렴 발생률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이 폐렴에 취약한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특히 폐와 면역체계는 점차 약해집니다. 호흡 생리학적으로 보면, 폐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흡입한 공기를 완전히 내보내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폐에 남은 잔기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동시에 기침 반사까지 둔해지면 기도 내로 미세 흡입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균이 폐로 침투해도 이를 쉽게 배출하지 못합니다.

또한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에서 연하장애(삼킴장애)가 흔히 동반되는데, 이로 인해 음식물이나 구강·비강 분비물 등이 기도로 자주 들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러한 병원체가 폐로 침투했을 때 기침 반사로 제거되지 못하면 결국 면역시스템이 이를 제거해야 폐렴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면역기능의 자연스러운 약화뿐만 아니라, 동반 질환 자체나 그 치료를 위한 약제의 부작용도 면역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치아 건강이나 구강 위생의 악화 등으로 구강 내 병적인 미생물의 증가, 영양 섭취 부족, 누워 지내는 시간의 증가, 병원이나 요양시설 내 다른 환자로부터 배출되는 내성균에 노출, 만성질환(당뇨, 심부전, 신부전 등)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년층에서 폐렴 발생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노년층 폐렴의 특징과 주의할 점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폐렴은 일반적인 폐렴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외래를 방문한 70대 치과 교수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교수님은 6개월 전 폐암 검진을 위해 저선량 흉부 CT를 예약하셨고, 내원 2주 전 촬영한 CT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외래에 방문하셨습니다. CT 소견을 보니 양쪽 폐에 제법 심한 폐렴 소견이 관찰되어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CT 촬영 전 한 달간 심한 감기를 앓았으며, 개인병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지금은 많이 회복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염증 수치는 정상이며, 폐렴의 염증은 회복되었으나 염증에 의한 폐렴 소견만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폐렴의 엑스선 소견은 호전

감기 증상이 평소에 비해 심하거나
식욕부진 등 일상패턴 달라지면 의심

손 씻기, 구강 청결, 영양균형 신경 쓰고
금연 절주, 매일 30분 걷기 등 예방 최선

되어도 몇 달간 관찰될 수 있음). 처음 내원한 개인병원에서는 흉부 엑스선을 촬영하지 않았고, 단순히 잘 낫지 않는 감기로 진단하여 항생제 등을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환자 본인도 의사이고 개인병원에서 진료도 받았지만, 심한 폐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한 채 뒤늦게 발견할 정도로 폐렴 진단이 얼마나 어려운 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층의 폐렴에서는 일반적인 폐렴 증상인 고열, 기침, 가래, 흉통, 호흡곤란 등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며, 멍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태, 이유 없는 낙상, 어지럼증, 탈수, 혼수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치매나 단순한 노년의 쇠약 등으로 오해하기 쉬워 폐렴의 조기 진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회복기에도 기저질환 있는지 확인해야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노년층의 폐렴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치료 시기도 늦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유도 노년의 폐렴에서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감기 증상이 평소에 경험하던 것보다 심하거나 평소 잘 드시던 식사를 거르

고 누워서 쉬고 싶다고 하는 등 일상적인 행동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폐렴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신속히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검사를 받아 폐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핵심인 경험적 항생제 투여, 수분 및 영양 관리, 산소치료 등은 의료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심호흡이나 기침을 통해 객담을 잘 배출하려는 노력이 회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하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하보조식이나 경관영양(콧줄 등을 통한 영양공급) 등에 대한 의료진의 권유를 적극 수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같은 위치에 반복적으로 폐렴이 재발하면 기도 폐쇄를 동반한 폐암, 이물질, 기도 협착 등의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CT나 기관지 내시경 등의 추가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렴 증상이 일단 호전되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이후에는 기저 질환, 예를 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기관지확장증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폐렴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회복기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폐렴은 예방이 최선

이처럼 노년기의 호흡을 위협하는 폐렴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생활 수칙을 실천하면 폐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호흡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호흡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건강한 생애



- ① 손 씻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감염 예방 수칙
- ② 구강 위생 관리: 잇몸질환, 충치 치료, 틀니 관리로 구강 내 병적 세균 줄이기
- ③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면역력 유지에 필수
- ④ 금연과 절주: 흡연은 기관지 섬모 기능을 저하하여 세균 제거 능력을 감소시키고, 과음은 면역 능력을 저하할 뿐 아니라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 ⑤ 규칙적인 운동: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은 폐 기능을 유지하고 기침 반사를 강화해 가래 배출을 돕는다.

를 지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멈추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이어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실천해 나갑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6) **만남**

예루살렘을 비추는 빛



1993년 촬영한 예루살렘 사진작품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 당시 이미 한 개의 성읍이었다(창세기 14:18).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에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으나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헤롯 왕 때 크게 번성했지만, 이후 파괴와 재건을 거치다가 1917년 영국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1961년 ‘6일 전쟁’ 때 예루살렘을 점령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성벽은 1540년경, 오스만 튀르키예의 술탄 메흐메드 2세가 건설한 것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9~18)



김한기 은퇴집사
서대문·은평교구

필자는 빛, 사진 작업은 빛의 예술이라고 하듯 늘 감사하며 촬영에 임한다. 오랜 세월 신·구약 성지를 찾았을 때마다 아름다운 빛을 주시어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원하는 사진을 담아낼 수 있게 되어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랫동안 정성을 쏟아 촬영해 온 사진을 모아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예수님 삶의 발자취 사진으로 다시 보기’ 주제로 여는 이번 전시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수난의 현장을 사진을 통해 조명하고자 한다. 전시는 8월 27일에 개막하여 9월 1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 예정이다. 사진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성경 속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더욱 가깝고 생생하게 전해지길 바란다. **만남**

가정예배학교 수료식… 반석 같은 믿음의 집 세웠습니다

교육부

교육부 교회교육원에서 주관한 가정예배 학교가 지난 5월 25일 주일부터 시작하여 5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사 신형섭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를 모시고 진행된 '가정예배 세우기'는 집짓기의 5단계처럼 터 닦기-기둥 세우기-벽돌 쌓기-지붕 덮기-디자인하기로 진행되었다. 이 강좌는 총 12가정이 참여하여 6월 22

일(주일)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 중 가정예배를 실천한 이영훈 집사(강동-송파교구)는 "정말 부족한 저희 가정을 가정예배 학교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었음을 고백하고, "이 은혜가 영락교회의 모든 가정에도 흘러가 신앙의 유산이 담장을 넘는 열매로



맺히길 소망합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가정의 선순환 집사(중구-용산교구)는 "현실 상황에서의 예배 실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교육 3주차부터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결단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기 바랍니다"고 고백했다.

예멘 현지 선교사 초청 선교역량 강화 세미나

의료선교부

의료선교부(부장 이명춘 장로)는 지난 6월 8일(주일) 한경직목사기념관 지하에서 '해외단기의료선교와 타문화권 이해'라는 주제로 제6차 선교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동 예멘에서 10년 이상 치과의사로 선교한 이스데반 선교사를 강사로 초



청해 진행한 이번 세미나는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선교부는 설 연휴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매년 두 차례 해외 단기의료선교를 펼치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올해 설 연휴에는 필리핀 카비테 지역으로 3박 5일간, 단원 50여 명이 참여했고, 추석 연휴에는 아프리카 부룬디로 선교를 떠날 예정으로 준비 중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의료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 활동에 대한 자체적인 피드백과 현실적인 선교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에 의료선교에 오랜 경험을 가진 선배 선교사와 교역자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뜨거워지는 『나의 기도』… 1만 마일리지 돌파 성도들에게 기념 배지

목양부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아 펼쳐고 있는 기도운동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운동은 『나의 기도』 책자에 매일 기도문을 적고 기도시간을 분 단위로 셀프 기록해 기도별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것이다. 교회의 상반기 평가(6월 22일 기준) 결과 1만 마일리지 넘게 적립한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년부부터 청년층을 망라한 교육부에서는 모두 40명이 1만 마일리지 넘게 쌓았다.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6월 29일 주일 예배를 통해 기념배지를 수여하며 지속적인 기도활동을 독려했다. 이 기도운동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1만 마일리지마다 주어지는 기념배지는 모두 5개의 성지순례지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겹세마네, 예루살렘>를 형상화한 것으로 5만 마일리지가 넘으면 (한경직 목사님의 첫 사역지였던) 신의주교회 배지를 추가로 수여한다. 마일리지 5만 점이 넘으면 모두 6개의 배지를 받는 셈이다.

기념배지를 받은 11명의 교육부 대표는 전미준(사랑부), 한태영(영아부), 정태준(유아부), 신민우(유치부), 오하빈(유년부), 백지원(초등부), 이유림(소년부), 조한준(중등부), 이윤아(고등부), 김예찬(대학부), 김승현(청년회) 등이다.



김하영·윤지은 선교사 부부 탄자니아로… 파송예배 드림

선교부

지난 6월 8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선교부 주관으로 김하영·윤지은 선교사 부부의 아프리카 탄자니아 파송예배를 드렸다. 서상현 장로의 기도, 박용준 목사의 설교 후 이어진 파송식에서는 손두상 안수집사가 선교사 소개를 한 뒤, 교단을 대표하여 류한웅 목사(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총무)가 단상에 오른 김하영 선교사에게 제74회 총회 파송장을 수여했다. 이어 선교사 부부의 서약서 낭독, 안수위원의 안수기도, 김운성 담임목사의 격려사, 파송선교사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하영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여덟 번째 선교사로, 장신대 신대원 졸업 후 본 교회에서 초등부 교육전도사와 선교부 전임전도사로 사역했으며, 2024년 10월 목사로 임직받았다. 김 선교사는 부인 윤지은 선교사와 어린 두 자녀 이레, 이든과 함께 6월 25일 현지로 출국했다.



신임교역자

부목사



이지철 목사
강남교구
평생대학, 사회복지재단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기독교교육
풀러신학교 신대원 목회학
일산동안교회 부목사



김여호수아 목사
서초교구
제자양육훈련부(소그룹), 자원봉사부
한남대 영문학
장신대 신대원, 구약학, 목회학
금호교회 부목사



채철우 목사
성동-광진교구
의료선교부, 4남/4여
아주대 미디어학
장신대 신대원, 영성신학
효성영광교회 부목사



김종훈 목사
노원교구
사회봉사부, 친교부, 4부예배 찬양
장신대 신학
장신대 신대원, 신학, 목회와상담
영락교회 전도목사(하나원하나교회)

교역자 동정

최승도 목사 사임

서초교구와 제자양육훈련부, 한경직목사 기념사업회, 역사위원회를 맡아 사역해오던 최승도 목사가 6월 15일 주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새성남교회(성남시 중원구)의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2015년 1월 부목사로 부임한 최 목사는 서대문·은평교구와 의료/문화선교, 4남/4여, 갈릴리찬양대 사역을 시작으로 고양·파주교구, 중구·용산교구, 선교부(전도, 국내/해외), 3남/3여, 임마누엘찬양대를 맡아 사역해 왔다. 6월 15일 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 이임설교에서는 빌립보서 1:3~8절을 본문으로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영락에서의 11년간 목회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동역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새성남교회: <https://www.ssnch.org/>



별밤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삶의 팔레트에 고요히 흐르나니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La Nuit étoilée sur le Rhône

1888 제작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고흐는 생애 말년, 신앙과 성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가운데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며 그 빛을 화폭에 그려낸 것처럼 보입니다.

고흐는 밤 풍경을 단순히 어둠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과 고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까지도 색채의 힘을 담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강물 위에 펼쳐진 깊고 고요한 밤하늘, 반짝이는 별빛, 물결을 따라 흘러내리는 가스등 불빛의 잔향은 마치 시편의 시인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던 순간을 묘사하는 듯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8:3) **만남**

2025년 7/8월호 통권 616호

발행 2025. 7. 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박지운 / 편집인 김주현 / 편집장 김성문

편집위원 조지형 소남호 이신일 김기선 박선이 정용성

기자 김경옥 /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김대준 김영란 김천경 승윤영 이나영 지예원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헌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월간『만남』e-Book

새아기·새가정... 은혜의 여정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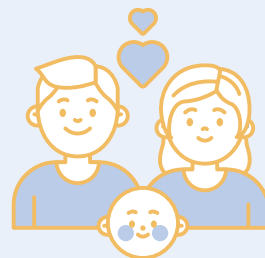


5월

새가정



박민주·김정선 가정



새아기



- 1 강하진(강지석·윤수진 가정)
- 2 양준우(양진욱·추정원 가정)
- 3 고서율(고재일·조주현 가정)
- 4 권유나, 권유연(권성현·이다영 가정)
- 5 김하루(김영조·이지현 가정)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La Nuit étoilée sur le Rhône, 1888)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 작품 내용은 68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